

| 보도자료 | 문 의 |
|---|--|
| <p>본 자료는 11월 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p> <p>통신사 및 온라인은 24일(수)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p>[거시] 동향·통계분석본부 홍성욱 연구위원 (044) 287-3192</p> <p>[산업]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박상수 연구위원 (044) 287-3830</p> |

2022년 경제·산업 전망*

2021. 11.

차 례

| | |
|----------------------------------|-----------|
| < 요약 > | i |
| I. 거시경제 전망 | 1 |
|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1 |
| 2. 대외 여건 전망 | 3 |
| 3. 2022년 국내경제 전망 | 14 |
| II. 13대 주력산업 전망 | 30 |
| 1. 2021년 산업 동향 | 30 |
| 2. 2022년 국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40 |
| 3. 2022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54 |
| 4. 정책적 시사점 | 70 |

| 요약 |

I.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 수출·투자 중심의 회복세 다소 둔화

- 국내 실물경기는 2021년 들어 코로나19 영향의 완화와 주요국들의 봉쇄 조치 해제 등에 따른 국내의 수요 회복으로 특히 상반기에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둔화세로 전환
 - 내수는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2021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하반기 들어 다소 둔화된 모습이고,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
 - 수출(통관기준)은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과 ICT 부문 수요 확대 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다소 둔화

□ 2022년 세계경제 : 전년 대비 낮은 성장률

- 2022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 재개방 조치 등이 긍정적 요인들이나, 경제 정상화 지연과 정책 기조 전환 등 제한 요인들로 인해 성장률 하락이 예상
 - 미국경제는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과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이 수요 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연준의 통화긴축 전환과 추가 재정정책의 한계 등이 성장률에 제한적 요인
 - 일본과 유로권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 중이나,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지고, 중국은 대내 구조개혁에 주력하면서 5%대 성장률이 예상

□ 유가 및 환율 : 유가 70달러대 중반, 환율 1,150원 상회 전망

- 국제유가는 상반기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과 세계 원유 수요 둔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점진적 해소,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로 인한 달러화 강세 등으로 완만한 하락이 예상
- 원/달러 환율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으나,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 중국의 성장 속도 둔화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연평균 1,150원을 웃도는 수준에서의 등락이 예상

□ 2022년 국내 경제성장 : 연간 성장률 2.9% 전망

- 2022년 국내경제는 수출 경기 둔화와 정책지원 축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이나, 코로나 여건의 개선과 함께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 등으로 전년 대비 2.9% 수준의 성장이 예상
- 2022년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경제 정상화 속도와 정책 기조 전환의 영향, 금융시장의 조정 강도 등이,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 강도와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부담,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 속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민간소비 : 전년 대비 3%대 증가 예상

- 소비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높은 백신 접종률과 단계적 일상 회복 영향 등이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 활동을 견인하면서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투자 : 설비투자 2.2% 증가, 건설투자 2.4%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IT 부문의 투자수요 지속과 비IT 부문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등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수출입 : 전년 대비 1%대 증가 전망

- 2022년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 속도가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
- 수입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 기저효과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
- 무역수지는 흑자 규모가 2022년 325억 달러로 2021년 대비 증가하나, 2020년(449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수출입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 | 2020 | 2021년 | | 2022년 |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실질GDP | -0.9 | 4.0 | 3.7 | 3.9 | 3.0 | 2.7 | 2.9 |
| 민간소비 | -5.0 | 2.4 | 3.7 | 3.1 | 3.3 | 3.1 | 3.2 |
| 설비투자 | 7.1 | 12.6 | 5.1 | 8.8 | 1.0 | 3.4 | 2.2 |
| 건설투자 | -0.4 | -1.5 | 0.2 | -0.7 | 2.2 | 2.6 | 2.4 |
| 통관 수출 (억 달러, %) | 5,125 (-5.5) | 3,032 (26.0) | 3,266 (20.1) | 6,298 (22.9) | 3,108 (2.5) | 3,273 (0.2) | 6,381 (1.3) |
| 통관 수입 (억 달러, %) | 4,676 (-7.1) | 2,855 (24.2) | 3,140 (32.1) | 5,995 (28.2) | 2,947 (3.2) | 3,108 (-1.0) | 6,055 (1.0) |
| 무역수지 | 449 | 176 | 126 | 303 | 161 | 164 | 325 |

자료 : 산업연구원.

II. 13대 주력산업 전망

□ 2021년 동향 : 세계경기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실적 큰 폭 증가

- 2021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국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철광석 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13대 업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25.6% 증가율 기록
 -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실적 호조와 전기차, 고급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크게 증가
 - 정유, 석유화학, 철강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세계 수요 증가로 3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
 -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IT 제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제품 수요가 지속되고, 하반기 신제품 수요 확대에 20% 큰 폭으로 증가
- 내수는 자동차, 조선 등 수송 분야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산업 대부분에서 증가
 - 자동차와 조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는 LCD 감소에 따른 부품·소재 수요 위축으로 감소
 - 반면,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산업은 비대면 및 코로나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신제품 출시 등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에 따른 내수 증가

□ 2022년 주요 여건 변화 : 국내의 수요는 일정 부분 회복되나 대내외 경쟁 여건 불확실성 지속

- (세계 수요 여건) 2022년 세계 주력산업 수요는 전년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미국, 유럽, 베트남 등 선진과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시장 대부분이 건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대중국 수출은 둔화 혹은 감소 전망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대부분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및 제품 경쟁이 2022년 우리의 글로벌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기조 강화 역시 우리의 경쟁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해외생산 전망) 2022년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은 세계 수요 회복과 해외 생산능력 확충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대될 전망
- (제품 단가 변화) 2022년에도 원자재가 상승 및 제품 프리미엄화에 의한 제품단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자동차, 가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이 수요산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국내 수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년 내수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는 내수 여건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공급능력 여건) 부품,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공급능력 위축 우려
- (국내 경쟁 여건 변화) 국내시장에서 중국 제품 및 해외생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경쟁 여건은 악화되겠지만, 신제품 출시 및 국내 생산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되는 측면도 존재

□ 2022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전망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전년(25.6%) 대비 크게 둔화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성장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수주 부족으로 감소로 전환하면서 기계산업군 수출은 2.2% 소폭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대부분 산업에서 수요 증대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로 전년(41.2%) 대비 4.6% 증가하여 증가폭 크게 축소
 - (IT산업군) 가전을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3.3% 증가가 예상되나, 전년(22.1%) 대비 증가폭은 크게 감소
- 내수 : 대부분 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나 제한적 성장세
 -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내수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설비 확대에 증가가 예상되나, 자동차와 조선은 수요 부족과 발주 감소로 감소세가 지속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의 건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전망되나, 전년 내수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미미
 - (IT산업군)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가 IT산업군 전체 내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2022년 산업 전망 기상도

○ 수입 : 단가조정 및 기저효과로 2.8% 소폭 증가 전망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단가하락 및 전년 큰 폭의 수입 증가(22.1%)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은 해외 인도량 및 기자재 수입이 감소하지만,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입이 늘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3.6%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수입단가 조정과 전년 큰 폭의 수입액 증가(39.7%)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 전망
- (IT산업군) 가전과 디스플레이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내수 확대가 IT산업군 수입 증가를 견인하여 전년 대비 4.0% 증가

○ 생산 : 수출 및 내수 성장세 지속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나, 증가 폭은 다소 둔화 전망

- 코로나19로 건조물량이 감소한 조선산업과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및 내수 확대로 생산 증가세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가 예상되나, 조선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큰 폭의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T산업군) 가전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감소하지만,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 전망

| | | 수출 | 내수 | 수입 | 생산 |
|-----------|--------|----|----|----|----|
| 기계 산업군 | 자동차 | ☆ | ☹ | ☆ | ☹ |
| | 조선 | ↑↑ |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
| 소재 산업군 | 철강 | ↑ | ☹ | ↑↑ | ☹ |
| | 정유 | ☆☆ | ☹ | ☆ | ☹ |
| | 석유화학 | ☹ | ☹ | ☹ | ☹ |
| | 섬유 | ☹ | ☹ | ☹ | ☹ |
| | 바이오헬스 | ☆ | ☆ | ☆ | ☆ |
| IT 산업군 | 정보통신기기 | ☹ | ☹ | ☹ | ☹ |
| | 가전 | ↑ | ☹ | ☹ | ☹ |
| | 반도체 | ☹ | ☆ | ☹ | ☆ |
| | 디스플레이 | ☹ | ☹ | ↑ | ☹ |
| | 이차전지 | ☆ | ☆☆ | ☆☆ | ☆ |

주 1) 전망 :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정책적 시사점

○ 정책 환경 진단

- 국내외 저탄소·친환경 기조가 확산되며 환경 관련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 되는 추세
-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제품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 미·중 무역분쟁 및 첨단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대응 방안

-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친환경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과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필요
-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유망 기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원료·소재의 대중 의존도 경감, 수출입선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강화, 공급망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 지원 정책 등이 필요

I.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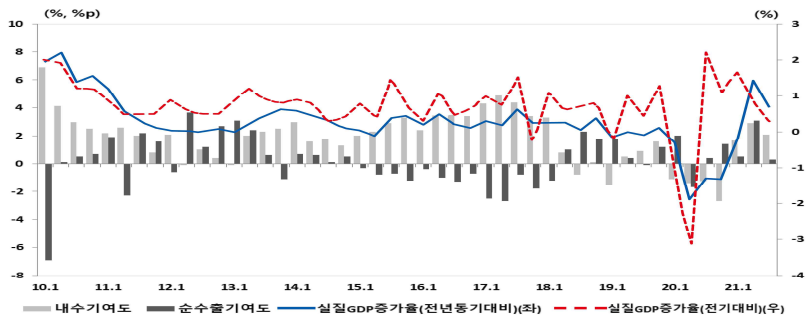
□ 현 경기 판단 : 수출·투자 중심의 회복세 둔화

○ 국내 실물경기는 2021년 들어 코로나19 영향의 완화와 주요국들의 봉쇄 조치 해제 등에 따른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특히 상반기에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둔화

- 내수는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2021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하반기 들어 둔화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
- 수출(통관기준)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ICT 부문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다소 둔화

- * GDP(전기비, %) : ('20.3/4) 2.2 → (4/4) 1.1 → ('21.1/4) 1.7 → (2/4) 0.8 → (3/4) 0.3
- * GDP(전년동기비, 이하 동, %) : ('20.4/4) -1.1 → ('21.1/4) 1.9 → (2/4) 6.0 → (3/4) 4.0
- * 민간소비(%) : ('20.4/4) -6.6 → ('21.1/4) 1.2 → (2/4) 3.7 → (3/4) 3.2
- * 설비투자(%) : ('20.4/4) 6.1 → ('21.1/4) 12.4 → (2/4) 12.8 → (3/4) 4.3
- * 건설투자(%) : ('20.4/4) -2.9 → ('21.1/4) -1.8 → (2/4) -1.2 → (3/4) -0.7
- * 통관수출(%) : ('20.4/4) 4.1 → ('21.1/4) 12.5 → (2/4) 42.1 → (3/4) 26.5

<그림 I-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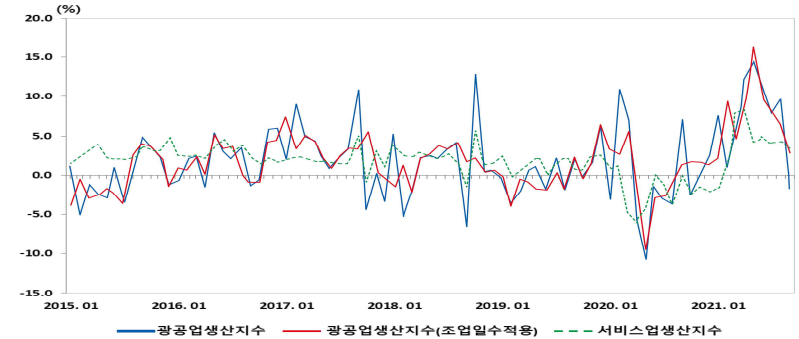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를 제외하고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연초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3분기 들어 둔화되고, 서비스업생산도 지난 4월까지 가파른 개선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세가 둔화

- * 광공업(전년동월비, %) : ('21.5월) 14.5 → (6월) 11.5 → (7월) 7.8 → (8월) 9.7 → (9월) -1.8
- * 서비스(전년동월비, %) : ('21.5월) 4.2 → (6월) 4.9 → (7월) 4.0 → (8월) 4.2 → (9월) 3.3

<그림 I-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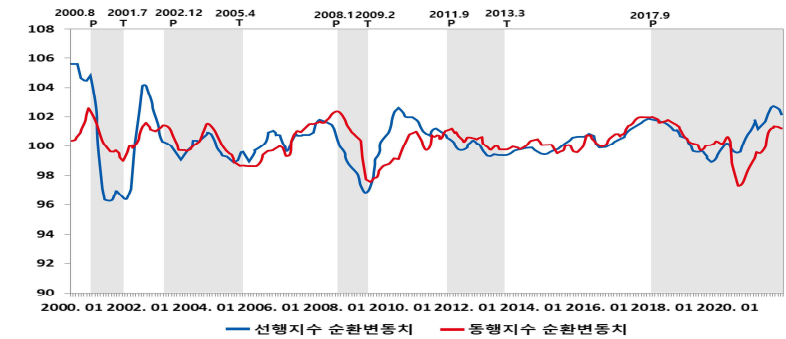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국내 경기지표 역시 연초부터 이어지던 상승세가 3분기에는 하락 전환 및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경기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

- * 선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1.5월) 0.3 → (6월) 0.3 → (7월) -0.1 → (8월) -0.3 → (9월) -0.3
- * 동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1.5월) 0.1 → (6월) 0.0 → (7월) 0.1 → (8월) -0.1 → (9월) 0.0

<그림 I-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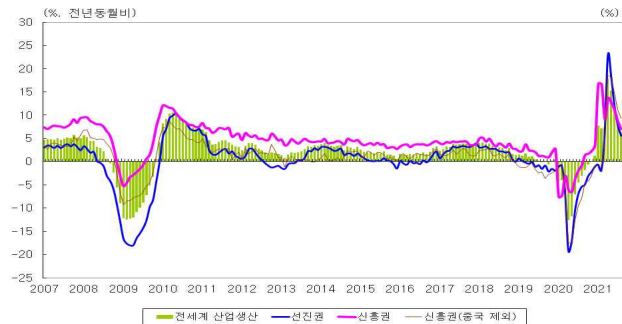
2. 대외 여건 전망

(1) 세계경제

□ 2021년 동향 : 플러스 성장률 회복, 하반기 들어 약화

- 세계 실물경기는 2021년 들어 선진권과 신흥권이 2020년의 침체를 벗어나 뚜렷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하반기 들어 다소 약화
 - 선진권은 미국이 상반기에 내수(소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전기비 6%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일본과 유로존 역시 2분기에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한 이후, 3분기에는 성장률이 상당폭 하락
 - 신흥권은 중국이 지난 1분기중 두 자릿수 성장률(18.3%)을 기록한 이후에 내수 약화 영향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등은 2분기에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 전 세계 산업생산은 상반기에 선진권과 신흥권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하반기 들어 증가율이 상반기 대비 낮은 수준
 - * 전 세계 산업생산 : (2020) -4.4% (2021.상반기) 11.1% ('21.7~8월) 7.3%
 - 선진권 : (2020) -6.6% (2021.상반기) 9.4% ('21.7~8월) 6.7%
 - 신흥권 : (2020) -2.3% (2021.상반기) 13.3% ('21.7~8월) 7.8%

〈그림 I-4〉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22년 전망 : 전년 대비 낮은 성장률

- 2022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 재개방 조치 등이 긍정적 요인들이나, 경제 정상화 지연과 정책 기조 전환 등 제한 요인들로 인해 성장률 하락이 예상
 - 미국경제는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과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이 수요 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연준의 통화긴축 전환과 추가 재정정책의 한계 등이 성장 확대에 제한적 요인
 - 일본과 유로권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 중이나,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지고, 중국은 대내 구조개혁에 주력하면서 5%대 성장률이 예상
 -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경제 정상화 여부와 정책 기조 전환의 속도 및 영향, 금융시장의 조정 강도,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이 관건

〈표 I-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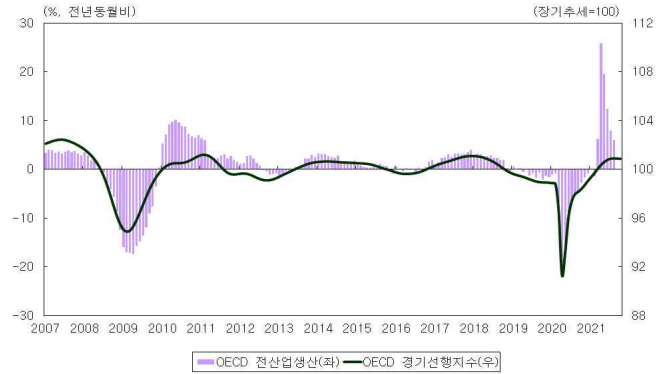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 | 2020 | | | 2021 | | | IMF | | OECD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2021 | 2022 | 2021 | 2022 |
| 세 계 | | | -3.1 | | | | 5.9 | 4.9 | 5.7 | 4.5 |
| 선진권 | -6.2 | -3.3 | -4.5 | -0.3 | 13.1 | - | 5.2 | 4.5 | - | - |
| 미 국 | -4.3 | -2.6 | -3.4 | 0.5 (6.3) | 12.2 (6.7) | 4.9 (2.0) | 6.0 | 5.2 | 6.0 | 3.9 |
| 유로존 | -8.8 | -4.2 | -6.4 | -1.2 | 14.3 | 3.7 | 5.0 | 4.3 | 5.3 | 4.6 |
| 일 본 | -6.2 | -3.1 | -4.6 | -1.3 | 7.6 | 1.4 | 2.4 | 3.2 | 2.5 | 2.1 |
| 개도권 | | | -2.1 | | | | 6.4 | 5.1 | - | - |
| 중 국 | -1.8 | 5.7 | 2.3 | 18.3 | 7.9 | 4.9 | 8.0 | 5.6 | 8.5 | 5.8 |
| 세계교역 | | | -8.2 | | | | 9.7 | 6.7 | - |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10월);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2021.9월).

주 : 선진권의 반기별 수치는 OECD 국가들의 성장률을 의미.

<그림 1-5> OECD 산업생산 및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표 1-2> OECD 및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 | 경기선행지수 ²⁾ (장기 추세=100) | | | | | 전월비 변화율 (%) | | | | | 전년 동월비 2021년 | 경기 전망 |
|-----------------------|-------------------------------------|-------|-------|-------|-------|----------------|-------|-------|-------|-------|--------------------|----------|
| | 2021 | | | | | 2021 | | | | | | |
|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 OECD | 100.8 | 100.9 | 100.9 | 100.9 | 100.9 | 0.19 | 0.09 | 0.03 | -0.01 | -0.02 | 2.51 | 경기정점 부근 |
| 유로권 | 100.8 | 101.0 | 101.1 | 101.1 | 101.1 | 0.29 | 0.15 | 0.06 | 0.02 | 0.00 | 3.04 | 완만한 성장세 |
| 아시아 신흥권 ¹⁾ | 100.2 | 100.2 | 100.1 | 100.1 | 100.1 | 0.00 | -0.02 | -0.04 | -0.04 | -0.04 | 0.85 | 성장모멘텀 약화 |
| 선진권(G7) | 100.7 | 100.8 | 100.8 | 100.7 | 100.7 | 0.16 | 0.06 | 0.01 | -0.03 | -0.05 | 2.28 | 경기정점 부근 |
| 캐나다 | 100.7 | 100.8 | 100.8 | 100.8 | 100.8 | 0.15 | 0.10 | 0.01 | -0.04 | 0.04 | 2.45 | 완만한 성장세 |
| 프랑스 | 99.4 | 99.5 | 99.5 | 99.5 | 99.5 | 0.27 | 0.08 | 0.01 | -0.01 | -0.01 | 1.63 | 경기정점 부근 |
| 일본 | 100.9 | 101.0 | 101.0 | 101.0 | 100.9 | 0.10 | 0.05 | 0.00 | -0.02 | -0.05 | 1.93 | 경기정점 부근 |
| 독일 | 101.8 | 102.0 | 102.0 | 101.9 | 101.8 | 0.27 | 0.13 | 0.00 | -0.06 | -0.08 | 3.00 | 경기정점 부근 |
| 이탈리아 | 101.6 | 101.8 | 101.9 | 101.9 | 101.9 | 0.36 | 0.20 | 0.08 | 0.02 | -0.01 | 3.33 | 완만한 성장세 |
| 영국 | 100.8 | 100.9 | 100.9 | 100.9 | 100.8 | 0.27 | 0.14 | 0.00 | -0.02 | -0.08 | 2.44 | 경기정점 부근 |
| 미국 | 100.4 | 100.4 | 100.4 | 100.4 | 100.4 | 0.11 | 0.02 | 0.00 | -0.03 | -0.05 | 2.15 | 경기정점 부근 |
| 브라질 | 102.6 | 102.3 | 101.8 | 101.2 | 100.5 | -0.23 | -0.33 | -0.47 | -0.60 | -0.69 | -2.49 | 성장세 둔화 |
| 중국 | 101.3 | 101.3 | 101.2 | 101.2 | 101.2 | -0.02 | -0.02 | -0.02 | -0.03 | -0.03 | 0.77 | 성장모멘텀 약화 |
| 인도 | 98.1 | 98.0 | 97.9 | 97.8 | 97.7 | -0.08 | -0.09 | -0.14 | -0.11 | -0.12 | 0.04 | 성장모멘텀 약화 |
| 러시아 | 101.8 | 102.3 | 102.8 | 103.2 | 103.6 | 0.47 | 0.45 | 0.44 | 0.43 | 0.35 | 5.47 | 성장세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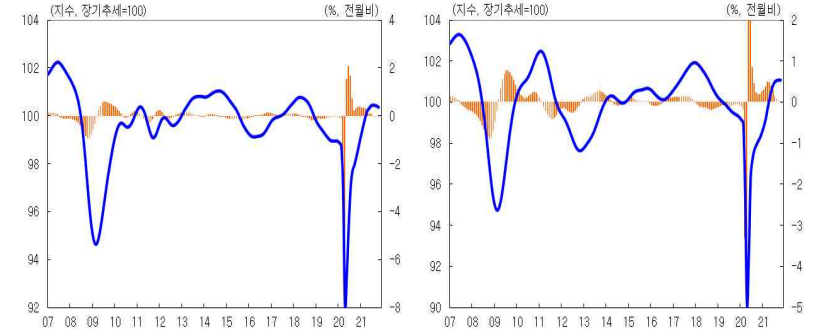
자료 : OECD.

주 1)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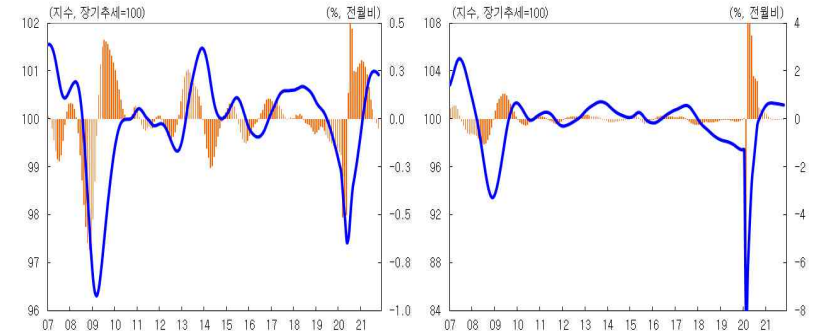
2)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하면 expansion(또는 downturn), 반대로 100 미만에서 상승(또는 하락)하면 recovery(또는 slowdown)를 의미.

<그림 1-6> 세계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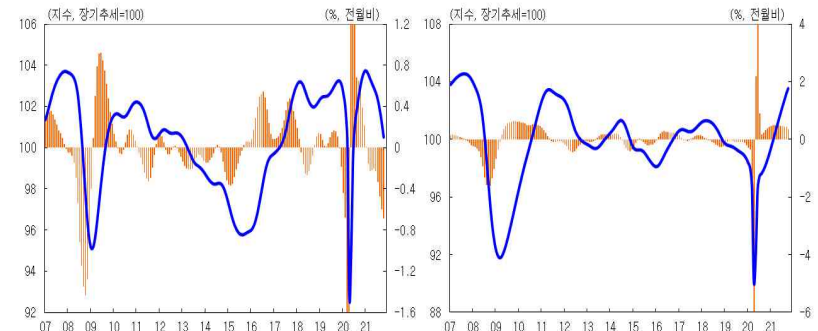
(a) 미국 (b) 유로



(c) 일본 (d) 중국



(e) 브라질 (f) 러시아



자료 : OECD Composite Leading Indicators(2021.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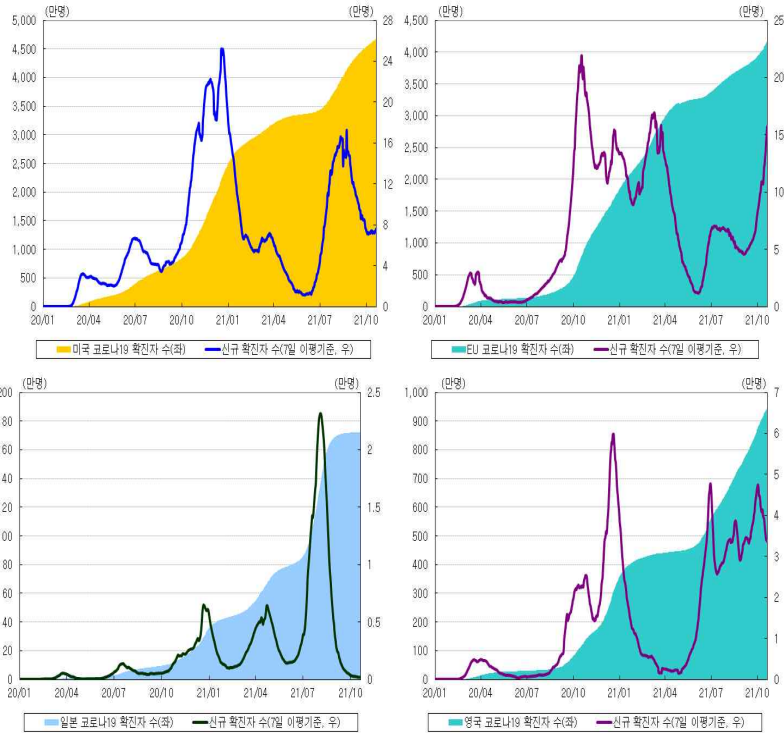
주 : 선 그래프(좌측)는 지수, 막대 그래프(우측)는 전월비 변화율을 의미.

<그림 1-8>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자료 : WHO.

<그림 1-9> 주요국 및 권역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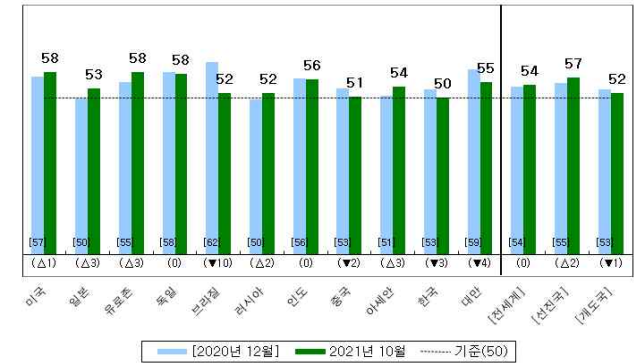


자료 :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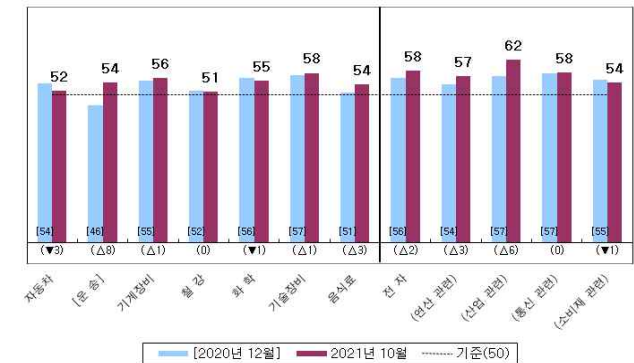
<그림 1-10> IHS Markit의 글로벌 제조업 PMI와 OECD 경기선행지수



<그림 1-11> 전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 (2020년 말 대비 현재)



<그림 1-12> 전 세계 주요 업종별 PMI (2020년 말 대비 현재)



자료 : IHS Markit PMI.

(2) 유가 : 연평균 70달러대 중반 예상

○ 2021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산유국들의 생산량 유지에 따른 원유 수급 불균형 지속 우려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80달러를 상회하는 등 예상외의 강세가 지속

- 상반기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의 단계적 증산 합의(4.1일)와 높은 이행률 등에 힘입어 상승세가 지속

- 하반기에는 미·중 갈등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와 달러화 강세 등이 유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세계경기 회복세로 인한 원유수요 증가와 OPEC+ 국가의 기존 증산 계획 유지 결정*에 따른 원유 공급 부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

* OPEC+ 합의(7.18일) : 2021년 8월~12월에 월 40만b/d 이내 증산

- 더욱이 8월 말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한 멕시코만의 석유공급 차질, 천연가스의 공급 차질에 따른 대체재로서의 석유수요 증가* 등이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현재는 80달러를 상회

* 아이다 허리케인 영향 멕시코만 석유생산의 80% 이상이 가동 중단 (828~96 BSEE¹⁾)

* 천연가스 가격(2021년 10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140.6% 상승 (Henry Hub²⁾ 기준)

<표 I-3> 국제유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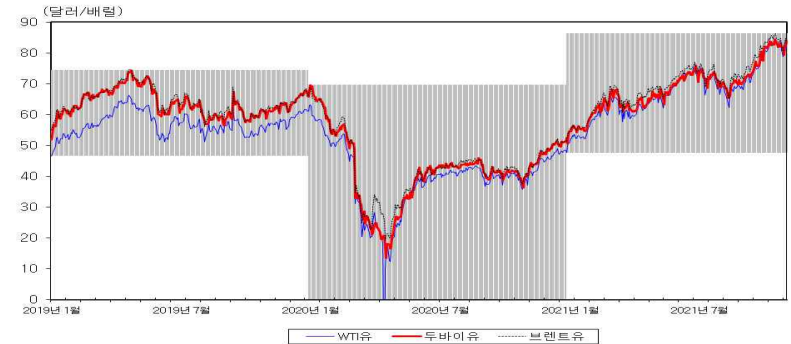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 | 2019년 | | | | | 2020년 | | | | | 2021년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1월 |
| WTI유 | 54.9 | 59.9 | 56.2 | 56.9 | 57.0 | 46.1 | 28.1 | 40.9 | 42.7 | 39.4 | 57.9 | 66.1 | 70.6 | 82.0 |
| Brent유 | 63.8 | 68.5 | 61.9 | 62.4 | 64.1 | 50.8 | 33.4 | 43.4 | 45.2 | 43.2 | 61.1 | 69.0 | 73.2 | 83.2 |
| Dubai유 | 63.4 | 67.6 | 61.1 | 61.8 | 63.5 | 50.6 | 30.5 | 42.9 | 44.6 | 42.2 | 60.1 | 67.0 | 71.7 | 82.1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2021년 11월은 11월 10일 기준.

1) BSEE(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 미국 안전환경집행국.
2) Henry Hub: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천연가스 배관망으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지표.

<그림 I-13>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1)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소값~최대값)임.
2) 2020.4.20일 WTI유 가격은 -37.6 달러를 기록.

○ 2022년 국제유가는 상반기까지도 원유 수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강세가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지속과 세계원유 수요 둔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의 점진적 해소,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국제유가는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과 천연가스 대체수요 등은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원유 수요는 둔화할 전망

- 또한 미국의 원유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OPEC+ 국가들이 현 증산 기조를 유지한다면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적으로 해소

-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도 국제유가의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두바이유 기준 2022년 유가는 상반기 평균 80.0달러(전년동기비 25.9% 상승), 하반기에는 69.3달러(전년동기비 9.7% 하락)로 예상하고, 연평균 74.7달러(전년 대비 6.4% 상승)로 전망

<표 I-4> 2021년 및 2022년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단위 : 달러/배럴

| | 2021년 | | | | | 2022년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WTI유 | 58.1 | 66.2 | 70.6 | 78.3 | 68.3 | 74.8 | 69.4 | 66.0 | 63.0 | 68.3 |
| Brent유 | 61.1 | 68.9 | 73.5 | 81.3 | 71.2 | 78.3 | 72.9 | 69.7 | 67.0 | 72.0 |

자료 : EIA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2021.10월).

<표 I-5> 2022년 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 | 2021년 | | | 2022년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Dubai유 | 63.5 (56.5) | 76.8 (75.3) | 70.1 (66.3) | 80.0 (25.9) | 69.3 (-9.7) | 74.7 (6.4) |

주 1)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1년 하반기는 11월 10일 기준.

(3) 환율 : 2021년 대비 소폭 상승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국내 코로나 재확산,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완만히 상승하다가 하반기 델타 변이의 전 세계적 확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상승세가 가속

-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국내 코로나 확산 및 백신 공급 불확실성 등의 원화 약세 요인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의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완만히 상승

- 하반기에는 한은의 금리 인상(8월 26일)과 수출 호조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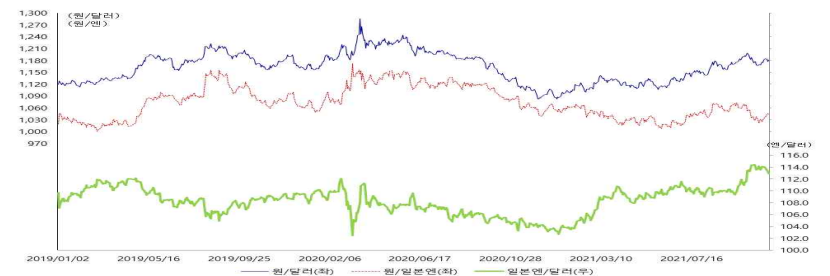
- 특히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촉발되었으며, 실제 인플레이 심화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개시 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점인 1,200원대를 기록

* 2021년 원/달러 환율 최고점: 1,200.4 원/달러 (10월 12일)

- 또한 중국발 리스크*로 인한 위안화 약세와 국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등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발 리스크: ① 중국의 규제 리스크 ② 헝가리를 파산이슈 ③ 중국 전력난

<그림 I-14> 원/달러, 원/엔(100엔),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022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겠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과 한국 및 중국의 성장 속도 둔화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 2022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은 달러화 약세 요인이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기까지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후 인플레이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횡보할 것으로 전망
 - 한국 역시 금리 인상 등으로 자본유출이 제한될 것이나, 해외자금 유입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 속도 둔화 등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는 원화 가치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발 리스크와 추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요인들이 2022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
- 2022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162.5원(전년동기비 4.0% 상승), 하반기 1,165.0원(전년동기비 0.4% 하락)로 예상하고, 연평균 1,163.8원(전년 대비 1.8% 상승) 내외로 예상

<표 1-6> 2022년 원/달러 환율 전망

| 2021년 | | | 2022년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1,117.5 (-7.5) | 1,170.0 (1.5) | 1,143.7 (-3.1) | 1,162.5 (4.0) | 1,165.0 (-0.4) | 1,163.8 (1.8) |

주 1)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1년 하반기는 11월 10일 기준.

3. 2022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22년 국내경제는 수출경기 둔화와 정책지원 축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이나, 코로나 여건 개선과 함께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 등으로 전년 대비 2.9% 수준의 성장이 예상
-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수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수출은 1.3%, 수입은 1.0%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32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내수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건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는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세와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이 예상
 - 소비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높은 백신 접종률과 단계적 일상 회복 등이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 활동을 견인하면서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회복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IT 부문의 투자수요 지속과 비IT 부문의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에서 증가세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등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22년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경제 정상화 속도와 정책 기조 전환의 영향, 금융시장의 조정 강도 등이,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 강도와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부담,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정책들의 추진 속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

〈표 1-7〉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 | 2020 | 2021년 | | | 2022년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실질GDP | -0.9 | 4.0 | 3.7 | 3.9 | 3.0 | 2.7 | 2.9 |
| 민간소비 | -5.0 | 2.4 | 3.7 | 3.1 | 3.3 | 3.1 | 3.2 |
| 설비투자 | 7.1 | 12.6 | 5.1 | 8.8 | 1.0 | 3.4 | 2.2 |
| 건설투자 | -0.4 | -1.5 | 0.2 | -0.7 | 2.2 | 2.6 | 2.4 |
| 통관 수출 (억 달러, %) | 5,125 (-5.5) | 3,032 (26.0) | 3,266 (20.1) | 6,298 (22.9) | 3,108 (2.5) | 3,273 (0.2) | 6,381 (1.3) |
| 통관 수입 (억 달러, %) | 4,676 (-7.1) | 2,855 (24.2) | 3,140 (32.1) | 5,995 (28.2) | 2,947 (3.2) | 3,108 (-1.0) | 6,055 (1.0) |
| 무역수지 | 449 | 176 | 126 | 303 | 161 | 164 | 325 |

자료 : 산업연구원.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2021년 민간소비는 2분기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들어 회복세가 둔화
 - 특히 7월부터 코로나 확진자수가 상당폭 늘어난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는 다소 위축
 - *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통계청COVID-19, 일평균) : '21.1Q 465명 → 2Q 582명 → 3Q 1,678명 → 4Q(10월~11.10일) 1,819명
 - 11월 현재 1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11월부터 적용하는 등의 여건은 소비에 긍정적 영향
 - * 백신접종 완료율(질병관리청, 말일 기준) : '21.7월 1차 37.7% 2차 13.9% → '21.10월 1차 79.4% 2차 74.7% → '21.11.10일 1차 81.2% 2차 77.2%
 - **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10) : 1차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개편 대규모 행사허용, 3차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 2021.2분기 실질총소득(GNI)은 교역조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6.1% 증가(전기비 0.1% 증가)
- 3분기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 증가세가 축소된 반면에 의복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의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5.1% 증가(전기비 0.1% 증가)

〈표 1-8〉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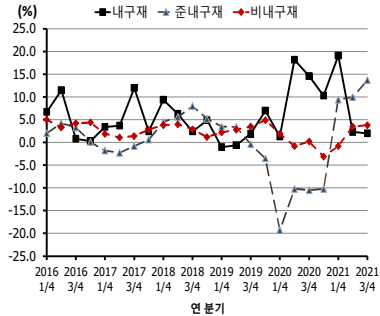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

| | 2019년 | 2020년 | | | | 연간 | 2021년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 민간소비 | 2.1 | -4.8 (-6.6) | -4.2 (1.2) | -4.5 (0.2) | -6.6 (-1.3) | -5.0 | 1.2 (1.2) | 3.7 (3.6) | 3.2 (-0.3) |
| 소매판매액 지수 | 2.4 | -2.9 (-5.7) | 2.0 (5.9) | 1.6 (-1.1) | -1.2 (0.9) | -0.2 | 6.4 (1.7) | 4.4 (2.7) | 5.1 (0.1) |
| 실질 GNI | 0.4 | 0.2 (-0.6) | -1.7 (-2.0) | -0.3 (2.3) | 0.8 (1.1) | -0.2 | 3.8 (2.4) | 6.1 (0.1) | -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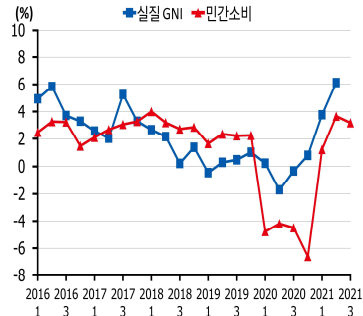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I-15> 재화별 소비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I-16> 민간소비와 실질GNI
(전년동기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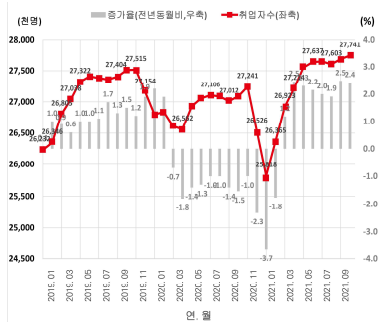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전년동기비 증가세로 전환된 모습이고, 고용률도 반등하는 등 지속되던 고용 위축 현상은 완화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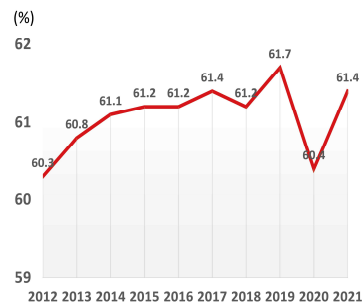
- 2021.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2.4% 증가한 2,774만 명이며, 고용률은 전년(60.4%)보다 상승한 61.4% 기록

<그림 I-17>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18> 고용률 추이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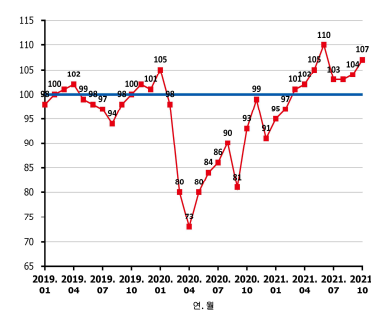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소비자심리지수가 7월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0월에 107을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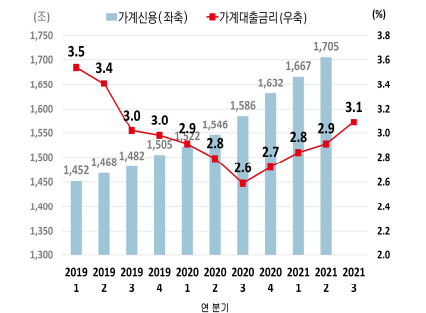
- 다만, 가계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현상들은 민간소비 회복세를 제약

<그림 I-19>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I-20>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022년 민간소비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심리도 양호한 가운데 코로나19 여건 개선(높은 백신 접종률, 위드 코로나의 본격화, 경구용 치료제 도입 예상 등)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2021년과 비슷한 3%대 증가율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양극화 심화 등의 여건들은 소비 확대에 제한적 요인

<표 I-9> 민간소비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 | 2021년 | | | 2022년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민간소비 | 2.4 | 3.7 | 3.1 | 3.3 | 3.1 | 3.2 |

자료 : 산업연구원.

2) 투자

□ 설비투자

- 2021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이와 관련된 산업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
 - 2020년에 이어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비대면 수요 확산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의해 반도체 및 ICT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 부문별 설비투자를 보면, 기계류 설비투자가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 두 자릿수 성장률로 크게 증가하였고, 1분기에 부진하던 운송장비 설비투자도 세계 교역량 회복에 따라 2분기에 증가세로 전환
 - 기계류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와 정밀기기에서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운송장비 설비투자는 1분기에 부진하던 기타 운송장비가 2분기에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9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

〈표 1-10〉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 | | 2020 | | | | | 2021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 전년 동기비 | 설비투자 | 7.4 (0.1) | 4.5 (0.7) | 10.7 (5.8) | 6.1 (-0.6) | 7.2 | 12.4 (6.1) | 12.8 (1.1) | 4.3 (-2.3) |
| | 기계류 | 4.5 (2.7) | 7.3 (-4.5) | 11.1 (13.5) | 9.1 (-11.5) | 8.0 | 17.4 (2.0) | 14.5 (5.6) | - |
| | 운송장비 | 17.3 (-0.8) | -2.4 (2.8) | 9.4 (3.1) | -1.1 (3.6) | 5.8 | -2.4 (7.5) | 8.3 (-0.3) | - |

자료 : 한국은행.

- 주 1) 2021년 3분기는 잠정치 기준.
- 2)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표 1-11〉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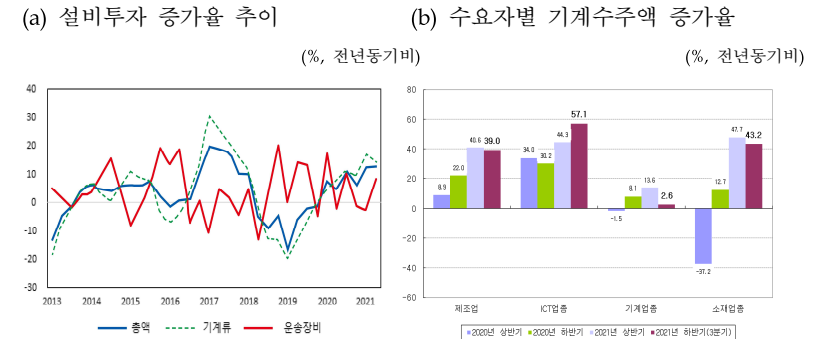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비

| | 2021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¹⁾ | 9월 ¹⁾ |
| 총지수 | 19.4 | 7.1 | 9.6 | 16.4 | 11.2 | 10.6 | 11.0 | 12.4 | -4.5 |
| 기계류 | 32.6 | 13.9 | 13.9 | 23.8 | 14.8 | 11.2 | 9.9 | 12.5 | 4.8 |
| 일반기계류 | 51.4 | 15.9 | 16.8 | 34.5 | 15.2 | 13.7 | 14.9 | 14.0 | 10.3 |
| 전기및전자기기 | 9.8 | 16.1 | 9.8 | 6.2 | 11.2 | 8.0 | 1.3 | 14.9 | -1.9 |
| 정밀기기 | 21.3 | 13.5 | 17.0 | 18.9 | 35.8 | 17.2 | 7.3 | 9.2 | 5.4 |
| 기타기기 | -2.2 | -6.4 | -2.6 | -2.2 | -8.2 | -9.7 | -4.7 | -1.9 | -15.6 |
| 운송장비 | -12.3 | -10.0 | -2.5 | -1.7 | 1.6 | 9.1 | 13.8 | 12.0 | -26.3 |
| 자동차 | 14.9 | 15.8 | 0.2 | -4.0 | 2.5 | -6.6 | 9.6 | 1.7 | -27.1 |
| 기타운송장비 | -34.5 | -30.8 | -6.6 | 1.9 | -0.2 | 37.4 | 19.5 | 27.8 | -25.4 |

자료 : 통계청.

주 1) 잠정치 기준.

〈그림 1-21〉 설비투자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2022년 설비투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데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ICT 부품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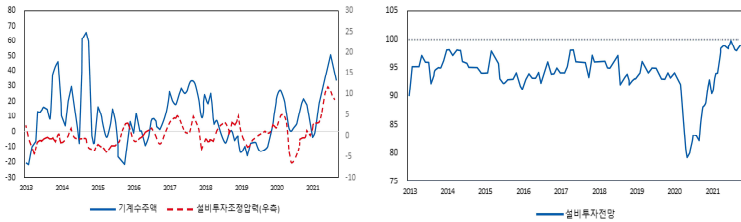
-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2022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 미국 마이크론,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약 176조 원) 설비투자 계획
- * TSMC, 향후 3년간 설비투자에 1,000억 달러(약 112조 원) 투입 계획
- * 삼성전자, 향후 3년간 반도체 분야에 150조 원 투자 계획

-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스마트폰 역시 5G 침투율 증가에 따른 5G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설비투자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섬유 및 철강 업종은 탄소중립 전략 도입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설비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지만, 석유화학 및 정유 업종은 기존 계획된 대규모 투자가 상당 부분 완료되면서 2022년에는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운송장비 업종에서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의 여파로 2022년 상반기까지 투자수요가 미진할 전망이고, 기타운송장비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시점까지 투자수요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설비투자 선행지수를 보면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3분기에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나,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도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

〈그림 1-22〉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a) 설비투자 선행지수 증가율 (% , 전년동기비) (b)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BSI, 기준=100)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기계수주(불변, 선박을 제외한 국내 수요)와 설비투자조정압력은 3개월 중심향 이동 평균.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3)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 건설투자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2021년에는 건물건설이 완만히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토목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 형태별로 보면 건물건설의 회복과 토목건설의 부진이 대비되고, 건설주체별로 보면 민간건설의 회복세와 정부건설의 부진 역시 대비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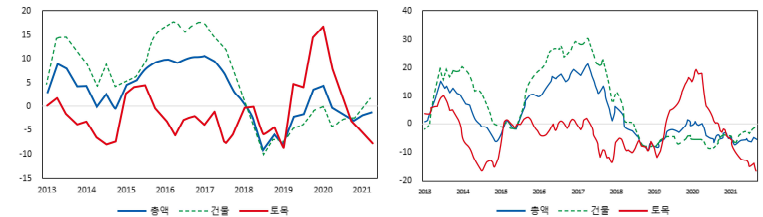
〈표 1-12〉 건설투자 추이

| | | 2020 | | | | 2021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¹⁾ |
| 전년 동기비 | 건설투자 | 4.4 | -0.4 | -1.5 | -2.9 | -1.8 | -1.2 | -0.7 |
| | 형태별 | | | | | | | |
| | 건물건설 | 0.0 | -4.3 | -2.7 | -2.7 | -0.4 | 2.0 | - |
| | 주거용 건물 | -3.1 | -6.7 | 0.1 | -0.4 | -0.6 | 1.0 | - |
| | 비주거용 건물 | 3.7 | -1.8 | -5.2 | -4.9 | -0.2 | 2.9 | - |
| | 토목건설 | 16.7 | 8.2 | 1.9 | -3.4 | -5.3 | -7.6 | - |
| 주체별 | | | | | | | | |
| 민 간 | -1.0 | -2.9 | -0.6 | 0.1 | 0.9 | 3.4 | | |
| 정 부 | 33.0 | 5.8 | -6.6 | -11.4 | -12.9 | -11.8 | | |
| 전기비 | 건설투자 | 0.1 | -2.9 | -3.9 | 3.5 | 1.3 | -2.3 | -3.0 |
| | 형태별 | | | | | | | |
| | 건물건설 | -0.6 | -4.6 | -1.5 | 3.9 | 1.9 | -2.5 | - |
| | 주거용 건물 | -1.3 | -4.0 | 2.2 | 2.9 | -1.5 | -2.6 | - |
| | 비주거용 건물 | 0.1 | -5.1 | -5.1 | 4.9 | 5.4 | -2.4 | - |
| | 토목건설 | 1.5 | 0.9 | -9.0 | 2.7 | 0.0 | -1.8 | - |
| 주체별 | | | | | | | | |
| 민 간 | -1.2 | -0.7 | 0.0 | 1.9 | 0.4 | -0.2 | | |
| 정 부 | 4.1 | -9.4 | -16.7 | 9.8 | 4.8 | -9.7 | | |

자료 : 한국은행.
 주 1) 잠정치 기준.

〈그림 1-23〉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a) 건설투자 증가율 (% , 전년동기비) (b) 건설기성액 증가율 (%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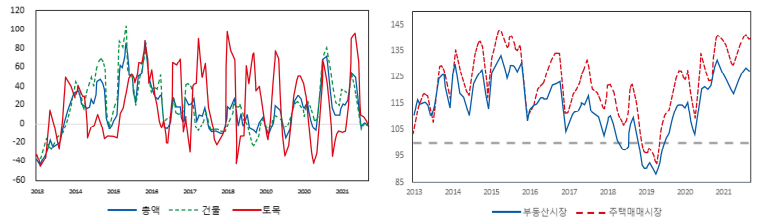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건설기성액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 2022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2021년에 양호한 인허가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부터 시작된 회복세를 이어가고,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국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 공장 건설과 상업용 건물 건축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
 - * 2021년 1~9월 국내 건물건설 누적 허가실적(면적 기준)은 전년동기비 16.5% 증가
- 토목건설은 건설자재 물가 상승이 불안 요소이나, 정부 SOC 예산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 정부 SOC 예산: ('20년) 23.2조 원 → ('21년) 26.5조 원 → ('22년) 27.5조 원
 - * 한국판 뉴딜 2020~25년(160조 원) 중 2022년에 33.7조 원을 투입할 계획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1년 3분기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부동산 심리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건설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

〈그림 1-24〉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a) 건설수주액 증가율 (%, 전년동기비) (b) 부동산 심리지수 (기준=100)



자료 : 통계청, 국토연구원.
 주 : 건설수주액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표 1-13〉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 | 2021년 | | | 2022년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설비투자 | 12.6 | 5.1 | 8.8 | 1.0 | 3.4 | 2.2 |
| 건설투자 | -1.5 | 0.2 | -0.7 | 2.2 | 2.6 | 2.4 |

자료 :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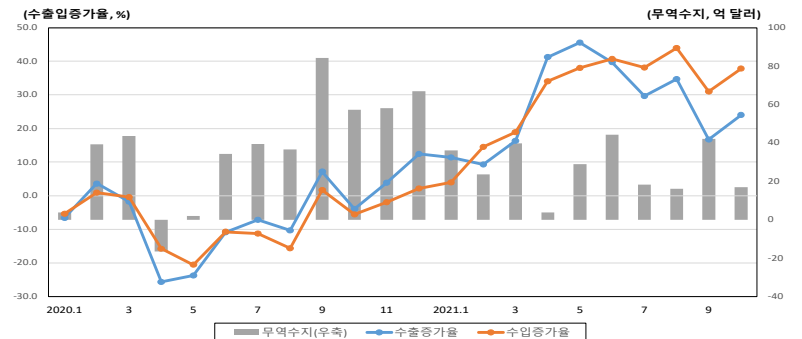
3) 수출입

□ 2021년 동향 :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2021년 수출입은 세계경기 회복과 ICT 업종의 수출단가 상승 및 반도체 호조 등으로 급격한 회복세를 기록

- 수출은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라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반도체 등 ICT 업종은 비대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단가와 물량이 크게 증가
- 수입 역시 국내경기 회복 및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요 증가와 원유, 철광, 동광 등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큰 폭 증가
-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비 25.9% 증가한 5,232억 달러, 수입은 27.7% 증가한 4,9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는 269억 달러로 전년 동기 수준과 유사
 - * 수출(전년동기비, %) : ('20년) -5.5 → ('21.1Q) 12.5 → (2Q) 42.1 → (3Q) 26.5
 - * 수입(전년동기비, %) : ('20년) -7.1 → ('21.1Q) 12.3 → (2Q) 37.5 → (3Q) 37.5

〈그림 1-25〉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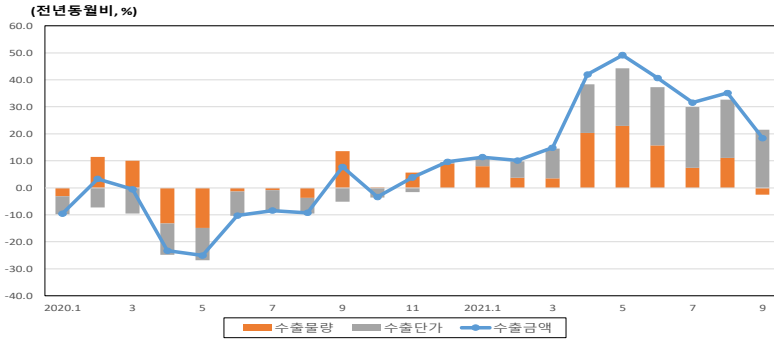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회복과 기저효과로 인해 단가와 물량 모두 증가하였는데, 단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유가 상승 및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기인

*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 ('20년) 1.1 → ('21.1Q) 5.2 → (2Q) 19.5 → (3Q) 4.9
 * 수출단가(전년동기비, %) : ('20년) -6.7 → ('21.1Q) 6.7 → (2Q) 20.3 → (3Q) 21.8

〈그림 1-26〉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DB.
 주 :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

- 산업별로는 전 업종에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조선, 일반기계, 섬유,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수출이 20% 이상 증가
 - 반도체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 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 경신이 확실시되며,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역시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
 -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전년 대비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 역시 50% 내외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
 - 자동차는 SUV,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 철강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단가가 크게 상승하고, 중국의 하반기 감산 계획 등이 추가 상승을 견인

〈표 1-14〉 산업별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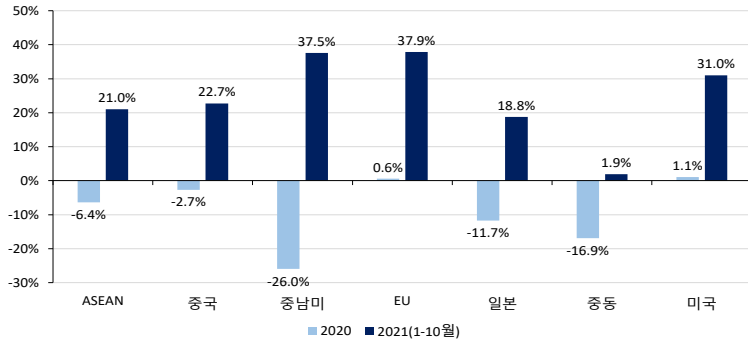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

| | 수출 증가율 | | | 수출 비중 | | |
|--------|--------|-------|------------|-------|------|------------|
| | 2019 | 2020 | 2021(1-10) | 2019 | 2020 | 2021(1-10) |
| 자동차 | 5.3 | -13.1 | 27.9 | 7.9 | 7.3 | 7.3 |
| 자동차부품 | -2.5 | -17.3 | 28.7 | 4.2 | 3.6 | 3.6 |
| 선박류 | -5.2 | -2.0 | 13.4 | 3.7 | 3.9 | 3.4 |
| 일반기계 | -1.9 | -8.9 | 11.3 | 9.7 | 9.3 | 8.3 |
| 철강제품 | -8.6 | -14.5 | 34.7 | 5.7 | 5.2 | 5.6 |
| 석유화학 | -14.8 | -16.4 | 56.4 | 7.9 | 6.9 | 8.7 |
| 석유제품 | -12.2 | -40.6 | 49.6 | 7.5 | 4.7 | 5.8 |
| 섬유류 | -8.0 | -13.3 | 13.9 | 2.4 | 2.2 | 2.0 |
| 가전 | -3.6 | 0.7 | 25.8 | 1.3 | 1.4 | 1.4 |
| 무선통신기기 | -17.6 | -6.4 | 26.5 | 2.6 | 2.6 | 2.5 |
| 컴퓨터 | -20.6 | 57.2 | 19.1 | 1.6 | 2.6 | 2.6 |
| 반도체 | -25.9 | 5.6 | 27.2 | 17.3 | 19.4 | 19.7 |
| 디스플레이 | -17.0 | -12.2 | 22.7 | 3.8 | 3.5 | 3.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지역별로는 중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
 - 미국과 EU 등 선진권은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대중국 및 대ASEAN 수출 증가는 주력 수출품목(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의 단가 인상이 주도
 - 중남미, 일본은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반등폭이 더 크게 나타남.

〈그림 1-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입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특히 원유 등 1차산품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에 의해 중간재와 소비재도 증가, 자본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

- 1차산품의 수입 급증은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전년 대비 상당폭 상승한 데 따른 가격 효과에 주로 기인

* 원유 수입단가(전년동기비, %) : (20년) -31.1 → (21.1Q) -9.3 → (2Q) 118.8 → (3Q) 71.7

* 철광 수입단가(전년동기비, %) : (20년) 5.7 → (21.1Q) 48.5 → (2Q) 83.5 → (3Q) 95.0

* 동광 수입단가(전년동기비, %) : (20년) 6.5 → (21.1Q) 57.1 → (2Q) 37.2 → (3Q) 33.8

〈표 1-15〉 가공단계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 | 2020 | | 2021(1~10월) | | 비중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총수입 | 4,676 | -7.1 | 4,963 | 29.6 | 100.0 |
| 1차산품 | 858 | -26.5 | 1,017 | 42.5 | 20.5 |
| (원유) | 445 | -36.7 | 533 | 41.1 | 10.7 |
| 중간재 | 2,347 | -6.1 | 2,517 | 30.9 | 50.7 |
| 자본재 | 750 | 14.9 | 744 | 22.8 | 15.0 |
| 소비재 | 694 | 0.6 | 665 | 17.6 | 13.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22년 전망 : 전년 대비 1%대 증가 전망

○ 2022년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의 큰 폭 증가(예상치 22.9%)에 따른 기저효과로 연간 1.3%의 증가율이 예상

- 백신 보급을 통한 불확실성 완화와 세계경제 정상화 등은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나, 2021년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는 2022년 수출 증가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중·호 갈등 등 국제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은 수출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중·호 갈등은 중국의 전력난을 통해서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를 촉발

○ 수입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예상치 28.2%) 기저효과 영향으로 연간 1.0% 수준의 증가율이 예상

- 2021년 수입 증가는 원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

- 2022년에는 개도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

○ 무역수지는 흑자 규모가 2022년 325억 달러로 2021년(303억 달러) 대비 증가하나, 2020년(449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수출입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표 I-16〉 2022년 수출입 전망

단위 : %, 억 달러

| | 2020년 | 2021년 | | | 2022년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통관기준 수출 | 5,125 (-5.5) | 3,032 (26.0) | 3,266 (20.1) | 6,298 (22.9) | 3,108 (2.5) | 3,273 (0.2) | 6,381 (1.3) |
| 통관기준 수입 | 4,676 (-7.1) | 2,855 (24.2) | 3,140 (32.1) | 5,995 (28.2) | 2,947 (3.2) | 3,108 (-1.0) | 6,055 (1.0) |
| 무역수지 | 449 | 176 | 126 | 303 | 161 | 164 | 325 |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II.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1년 산업 동향

□ 수출 : 세계경기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큰 폭 증가

○ 2021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국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철광석 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13대 업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25.6%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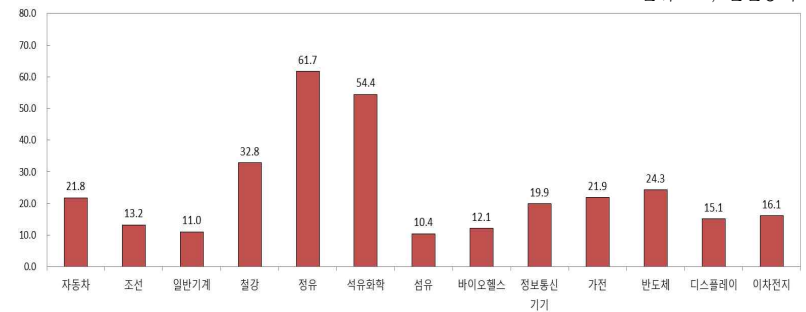
-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실적 호조와 전기차, 고급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크게 증가

- 정유, 석유화학, 철강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세계 수요 증가로 3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

-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IT 제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제품 수요가 지속되고, 하반기 신제품 수요 확대로 20% 큰 폭으로 증가

〈그림 II-1〉 2021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추정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은 전동차 수출 비중 확대, 기계류 세계 수요 증가, 주력 선종의 인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서 전년 대비 16.3% 증가

- 자동차 수출은 코로나19 동남아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급 차질로 하반기 수출물량은 급감하였으나, 상반기 기저효과와 수출단가가 높은 전동차의 수출 비중 상승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
- 조선 수출은 LNG/LPG운반선, 탱커 등 수주회복기(2018~2019년) 수주 물량이 정상적으로 인도되면서 13.2% 증가
- 일반기계는 주요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생산설비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11.0% 증가

○ **(소재산업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증가와 더불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41.2% 대폭 증가

- 철강은 세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우선 공급기조로 수출물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철강 가격 급등으로 수출액은 32.8% 증가
- 정유제품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출단가가 크게 상승하여 전년 대비 61.7% 급증
- 석유화학 역시 수출단가와 물량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 대비 54.4% 증가 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 섬유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글로벌 의류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10.4% 증가
- 바이오헬스 수출은 의약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부진했던 의료기 수출이 크게 개선되어 12.1% 증가

○ **(IT산업군)** IT산업군 수출액은 글로벌 수요 확대와 비대면 제품 및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저장과 관련한 SSD 수요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1% 증가

-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은 5G 서비스 시장 성장에 따른 세계 스마트폰 시장 회복과 온라인 수요 급증으로 서버용 SSD 수출이 크게 늘어 19.9%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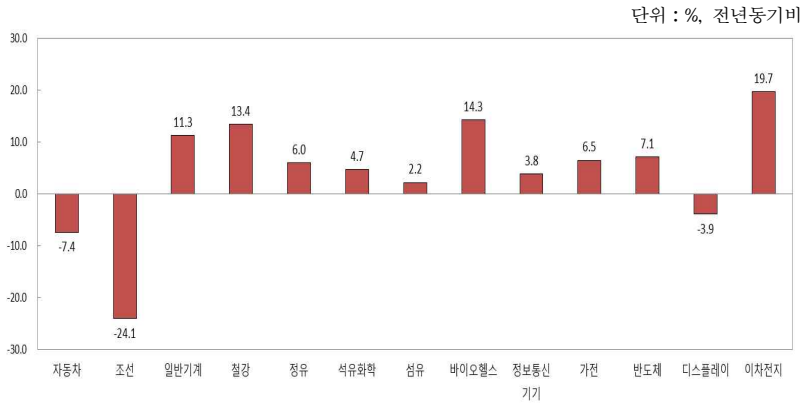
- 가전 수출은 생활가전 중심으로 고가 수요가 많은 대미국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전년 대비 21.9% 증가
- 반도체 수출은 세계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 전년 대비 24.3% 증가
- 디스플레이는 OLED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IT제품 수요 확대에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15.1% 증가
- 이차전지 수출은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중국산 전기차용 원통형 전지 제품과 리튬이온전지 중심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

□ 내수 : 국내 제조업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대부분 산업이 증가

○ 자동차, 조선 등 수송 분야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산업 대부분에서 증가

- 자동차와 조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는 LCD 감산에 따른 부품·소재 수요 위축으로 감소
- 반면,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산업은 비대면 및 코로나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신제품 출시 등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에 따른 내수 증가

<그림 II-2> 2021년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추정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조선 내수는 전년 대비 기저효과와 반도체 공급 차질로 감소한 반면,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설비투자 및 건설발주 확대로 증가

- 자동차는 소비 진작책과 신차효과로 구매수요는 유지되었으나,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 영향으로 하반기 11.8% 급감하여 전년 대비 7.4% 감소

- 조선 내수는 우리나라 국적선사로부터의 인도량 감소로 전년 대비 24.1% 급감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증가 및 공공기관 건설발주로 건설기계, 냉동공조기 품목 수요가 늘어 11.3% 증가

○ (소재산업군) 소재는 주요 수출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수출산업 호조로 모든 소재 업종의 내수가 증가

- 철강 내수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기계산업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4% 두 자릿수 증가

- 정유제품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송용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용 나프타 및 LPG의 수요가 내수를 견인하며 6.0% 확대

- 석유화학 내수는 코로나19 관련 가전제품, 포장재, 개인방호용품 등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였지만, 국내 소비활동 제약 완화 및 인프라 투자로 확대 4.7% 증가

- 섬유내수는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와 산업용 섬유 생산 증가로 2.2% 증가

- 바이오헬스 내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하반기 내수가 22.5%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3% 증가

○ (IT산업군) 코로나19 충격에도 증가세를 기록했던 IT산업 내수는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에 이어 성장세를 유지

- 정보통신기기는 5G폰 신규 스마트폰 교체수요와 휴대형PC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8% 증가

- 가전은 수요 촉진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기 회복, 비대면 제품 수요 지속, 제품 고급화로 6.5%의 안정적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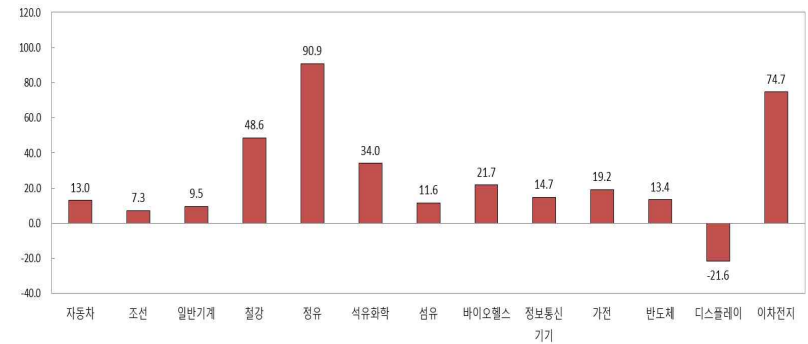
- 반도체 내수는 자동차 소비 증가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7.1% 증가
- 디스플레이 내수는 OLED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LCD 감산에 따른 부품·소재 수요 위축으로 3.9%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
- 이차전지 내수는 국내 전기차 신차 출시에 따른 생산량 증대로 19.7% 큰 폭 증가

□ 수입 : 내수 확대로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22.1% 증가

- 내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디스플레이는 LCD 재고관리용 물량 축소로 전년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 지속

<그림 II-3> 2021년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가율 추정

단위 : %, 전년동기비



-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기계산업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6% 증가

- 자동차 수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으로 하반기 감소로 전환하였지만, 상반기 수입차 판매 급증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
- 조선은 LNG운반선 건조량 증가로 조선기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선박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7.3% 증가
- 기계류 수입은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 확대 및 주요 수요산업의 생산 및 수출 증가세로 전년 대비 9.5% 증가

○ **(소재산업군)**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크게 상승하여 전년 대비 39.7% 대폭 증가

- 철강 수입은 국내 내수 증가 대응, 국내 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재 대체 등의 요인으로 감소세에서 벗어나 48.6% 큰 폭의 증가 전환

- 정유와 석유화학은 수입물량과 수입단가가 동반 상승하며, 전년 대비 각각 90.9%, 34.0% 증가

- 섬유는 해외생산 의류 및 섬유소재 뿐만 장기간 억눌린 소비심리가 명품 보복소비로 이어져 전년 -5.3%에서 11.6%로 증가 전환

-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백신 수입의 급증으로 21.7% 증가

○ **(IT산업군)** 디스플레이 수입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IT 제품의 꾸준한 수요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제품에 대한 역수입으로 14.4% 증가

- 정보통신기기는 비대면 온라인 수요 확대로 노트북 등 개인용 PC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하반기 5G 신규 스마트폰 대체수요에 힘입어 14.7% 증가

- 상반기 가전 수입은 안정적인 내수경기와 기저효과로 30.6% 대폭 증가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델타변이 확산으로 베트남 등 해외생산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내수 증가세도 둔화하여 전체적으로 19.2% 증가

- 반도체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1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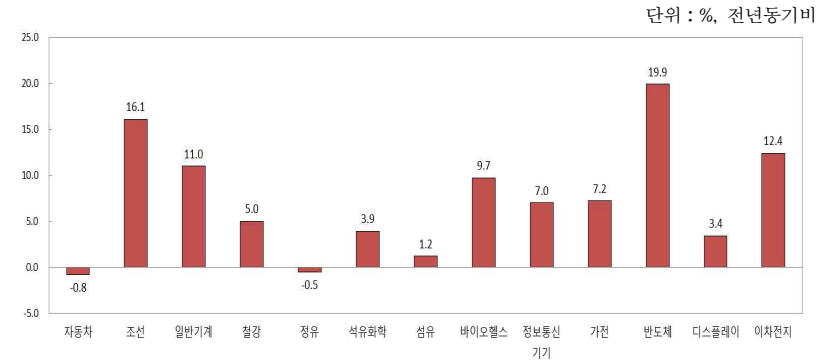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수입은 국내 패널제조사의 재고관리용 LCD 패널 재수입 물량 축소로 21.6% 감소

- 이차전지 수입은 내수 대응을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74.7% 큰 폭 증가

□ **생산 : 수출 및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

○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문제가 있는 자동차와 상반기 생산이 부진했던 정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수출 및 내수 호조로 증가

〈그림 II-4〉 2021년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추정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기계산업군)**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로 자동차 생산은 감소한 반면, 조선과 일반기계는 두 자릿수 증가

- 자동차 생산은 상반기 11.5% 증가하였지만, 하반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이 반복되면서 11.4% 급감하여 전년 대비 0.8% 감소

- 조선은 수주 회복기 물량이 정상 인도되어 상반기 41.0%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인도물량이 크게 줄어(-9.7%) 연간 16.1% 증가 기록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전반의 내수와 수출 호조세와 함께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지속으로 11.0% 증가

○ **(소재산업군)** 상반기 수출이 부진했던 정유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 산업군은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 유지

- 철강 생산량은 내수가 큰 폭으로 증가(13.4%)하였으나 상반기 생산 중단 및 공급차질 문제로 5.0% 증가
- 정유 생산량은 내수 확대와 하반기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수출 부진으로 0.5% 소폭 감소
- 석유화학 생산물량은 내수 및 수출 호조와 더불어 신증설 생산설비 가동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3.9% 증가
- 섬유는 국내외 경기의 빠른 회복세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확대하여 전년 부진(-7.1%)에서 벗어나 1.2% 증가 전환
- 바이오 헬스는 전년 큰 폭의 증가(33.5%)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가기 중심으로 9.7% 증가세 지속
- **(IT산업군)**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이차전지는 수출 및 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생산도 비교적 크게 성장했고, 디스플레이는 OLED 생산 확대로 증가로 전환
 - 정보통신기기는 동남아지역 델타변이 확산과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5G 신규 스마트폰용 부품과 SSD 수출 호조가 생산을 견인하여 7.0% 증가
 - 가전은 동남아 델타변이 확산으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요 증가에 따라 상반기 수출과 내수가 모두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국내 생산도 7.2% 높은 증가세를 유지
 - 반도체 생산은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신규 생산설비 확대로 19.9% 증가
 - 디스플레이 생산은 LCD의 점진적 감산에도 불구하고 OLED 생산 확대 영향으로 3.4% 증가
 - 이차전지는 중국 내수용 원통형 제품의 국내 대체생산과 ESS 후공정 생산 설비능력 확대로 12.4% 증가

2. 2022년 국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1) 대외 여건 변화 : 세계 수요는 일정 부분 회복되나 미·중 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

□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세, 친환경 관련 신수요 등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제한적 성장세

○ **(세계 수요 여건)** 2022년 세계 주력산업 수요는 전년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일반기계, 철강 등은 경기부양책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어 수요산업 성장세가 전망되지만, 동남아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경기 위축 등은 수요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품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의약 및 위생 관련 석유화학, 섬유, 바이오헬스, 비대면 전환 관련 정보통신기기(5G폰, PC, SSD 등),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세계 수요는 지속 증가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기조로 자동차(전기동력차), 조선(친환경선박), 이차전지(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수요 역시 지속적인 성장 전망
- 그러나 가전은 코로나19 특수 교체수요 소진,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용 OLED 확산 지연으로 증가세 축소 전망

<표 II-1> 주요 산업을 둘러싼 세계 수요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자동차 | 장기적 추세 및 사이클(미국, 유럽, 러시아, 중남미 시장수요) | ☆ |
| | 세계 경기 | ↑ |
| | 기저효과 | ☆ |
| | 환경규제의 강화 | ☆ |
| | 수요 촉진 정책(전기차 등 보조금 확대, 폐차보조금 지원) | ☆ |
| 조선 | 해상물동량의 양호한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수요 지속 | ☆ |
| | 2021년 컨테이너선사 대규모 발주에 따른 기저효과 | ↑ |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일반기계 | 환경규제 강화(IMO EEDI/EEXI, CII 등)로 친환경선박 수요 확대 | ☼ |
| | 원자재가격 상승 및 조선사의 물량 확보에 따른 높은 선가 | ☼ |
| | 세계 경기 | ☼ |
| | 환경규제의 강화 | ☼ |
| 철강 | 인프라 투자 정책 | ☼ |
|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 |
| | 세계 경기 | ☼ |
| 정유 | 수요(인프라 투자 확대,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촉진 정책 | ☼ |
| | 장기적 추세 및 사이클 | ☼ |
| | 세계 경기 | ☼ |
| 석유화학 | 제품가격 | ☼ |
| | 수요 촉진 정책 | ☼ |
| |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수요산업 생산 전망 | ☼☼ |
| 섬유 | 코로나 이후 신규 수요 발생 | ☼ |
| | 기저효과 | ☼ |
| | 미중 분쟁 장기화, 중국 에너지 조달 | ☼ |
| | 세계 경기 | ☼ |
| 바이오헬스 | 기저효과 | ☼ |
| | 환경규제의 강화 | ☼ |
| | 제품가격 | ☼ |
| 정보통신기기 | 장기적 추세 및 사이클 | ☼ |
| | 세계 경기 | ☼ |
| | 기저효과 | ☼ |
| | 글로벌 수요 개선 | ☼ |
| 가전 | 수요(5G 서비스 확대,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촉진 정책 | ☼ |
| | 제품가격(고급형 신제품 확대 반면, 중국의 공격적 시장 공세) | ☼ |
| | 기저효과(2021년 두 자릿수 증가세) | ☼ |
| 반도체 | 세계 경기 호조(최대수출국인 미국의 경제성장 양호) | ☼☼ |
| | 기저효과(코로나19 특수에 따른 보복소비 및 교체수요 실현) | ☼☼ |
| | 수요 촉진 정책 감소(위드 코로나) | ☼ |
| 디스플레이 | 제품가격 상승(공급망 위기, 고급화 등의 요인) | ☼ |
| | 장기적 추세 및 사이클 | ☼ |
| | 세계 경기 | ☼ |
| | 제품가격 | ☼ |
| 이차전지 | 수요 촉진 정책 | ☼ |
| | 수요산업 생산 전망 | ☼ |
| | 환경규제의 강화 | ☼ |
| | 코로나19 영향력 감소 | ☼ |
| 이차전지 | LTPO(저온 다결정산화물)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 | ☼ |
| | 폴터블 폰 판매 상승 | ☼ |
| | 노트북 등 신수요 상승 | ☼ |
| 이차전지 | 공급망 위기로 인한 수요 축소 | ☼ |
| | 수요산업 생산 전망 | ☼ |
| 이차전지 | 환경규제의 강화 | ☼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미국, 유럽, 베트남 등 선진과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시장 대부분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대중국 수출은 둔화 혹은 감소 전망

- 자동차, 일반기계, 이차전지, 정보통신기기는 미국 시장의 수요 증가세가 전망되며, 베트남 수출은 섬유,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기대
- 반면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주요 시장인 중국은 2022년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어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일반기계, 철강, 정유, 가전 등은 감소 전망
- 가전은 코로나19 특수 종료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대부분 권역으로의 수출 감소 우려
- 반도체 수요는 IT제품 생산기지인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입수요 증가 지속

〈표 II-2〉 주요 수출 대상국의 2022년 수요 전망

| | 국가 | 비중 ¹⁾ | 영향 | 국가 | 비중 | 영향 | 국가 | 비중 | 영향 |
|--------|-----|------------------|----|-----|------|----|-----|------|----|
| 자동차 | 미국 | 35.2 | ☼ | EU | 18.8 | ☼ | 러시아 | 5.8 | ☼ |
| 일반기계 | 중국 | 25 | ☼ | 미국 | 20 | ☼ | 베트남 | 5 | ☼ |
| 철강 | 선진국 | 37 | ☼☼ | 중국 | 13 | ☼ | 동남아 | 30 | ☼☼ |
| 정유 | 중국 | 13 | ☼☼ | 일본 | 12 | ☼ | 아세안 | 28 | ☼ |
| 석유화학 | 중국 | 50 | ☼ | 아세안 | 15 | ☼ | 아세안 | 28 | ☼ |
| 섬유 | 베트남 | 20.9 | ☼ | 중국 | 14.6 | ☼ | 미국 | 12.7 | ☼ |
| 바이오헬스 | 독일 | 30 | ☼ | 미국 | 10 | ☼ | 일본 | 10 | ☼ |
| 정보통신기기 | 미국 | 27.7 | ☼ | 중국 | 26.2 | ☼ | EU | 13.2 | ☼ |
| 가전 | 미국 | 48.3 | ☼☼ | 일본 | 6.6 | ☼ | 중국 | 6.1 | ☼ |
| 반도체 | 중국 | 39 | ☼ | 홍콩 | 21 | ☼ | 베트남 | 11 | ☼ |
| 디스플레이 | 베트남 | 53.6 | ☼ | 중국 | 38.3 | ☼ | 기타 | 8.1 | ☼ |
| 이차전지 | 미국 | 35 | ☼ | 독일 | 10 | ☼ | 중국 | 10 |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1년 기준).

□ 글로벌 경쟁 여건은 대체적으로 악화 예상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대부분 업종에서 중국과의 기술 및 제품 경쟁이 2022년 우리의 글로벌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기조 강화 역시 우리의 경쟁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은 중국의 기술력 및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
- 미·중 간 무역분쟁과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는 우리나라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섬유, 정보통신기기 등의 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작용
- 국제유가와 원료(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원가경쟁력은 하락 우려
-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은 지속적으로 해외 생산이 늘어 우리 수출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전용 플랫폼 적용을 통한 상품성 및 효율성이 제고된 국산 전기차, 환경규제 강화로 국산 친환경 저탄소연료추진선박(LNG, LPG 등), 플래그십 IT 제품 및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반도체는 국내 기업의 생산 기술력 및 제품 경쟁우위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여건 향상

<표 II-3> 주요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자동차 |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여 상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 전기차 출시 | ☆☆☆ |
| | 글로벌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한 제품 전략 | ☆☆ |
| 조선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스마트선박의 발주 증가 | ☆☆ |
| | 고부가가치 대형선박 외에 범용선박의 수요 증가 | ↑ |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일반기계 | 중국 제품의 기술경쟁력 향상 | ↑ |
| |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 ↑ |
| | 미중 무역분쟁 재개 | ☆☆ |
| 철강 | 미중 분쟁에 따른 영향 | ☆☆ |
| |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 ↑ |
| 정유 | 주요국의 산업 정책 | ☆☆ |
| |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변화(해외 제품 대비) | ☆☆ |
| | 미중 분쟁에 따른 영향 | ☆☆ |
| | 일부 정유시설 폐쇄 등의 글로벌 구조조정 | ☆☆ |
| 석유화학 | 글로벌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조정 및 신규설비 가동 확대 | ↑ |
| | 주요 수출국 내 시장점유율 변화 | ☆☆ |
| |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 ↑ |
| 섬유 | 중국발 불확실성(미중분쟁, 중국 에너지 공급) | ↑ |
|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 ↑ |
| |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 ↑ |
| 정보통신기기 | 미중 분쟁에 따른 영향 | ↑ |
| | 경쟁기업의 신제품 및 모델 출시 | ↑ |
| | 국산 신제품 및 모델 출시(5G폰, 폴더블폰, SSD 등) | ☆☆☆ |
| |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변화(해외 제품 대비) | ☆☆ |
| 가전 | 미중 분쟁에 따른 영향 | ☆☆ |
| | 국내 제품경쟁력과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쟁우위 | ☆☆ |
| 반도체 | 해외생산 증가(가격경쟁력, 수출시장 인접, 무역규제 등에 대응) | ☆☆↑ |
| | 경쟁력 강화 정책 | ☆☆ |
| 디스플레이 | 국산 신제품 및 모델 출시(신기술 및 신기능 포함) | ☆☆ |
| | 중국 OLED 기술 경쟁력 확대 | ↑ |
| 이차전지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탄소국경세 등의 환경규제 도입 또는 탄소발자국 의무화 입법 관련) | ☆☆ |
| | 주요국의 산업 정책 | ☆☆ |
| | 경쟁국의 신제품 및 모델 출시(차세대 전지) | ☆☆ |
| | 해외생산 증설 및 수출 안정화 | ↑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해외생산 전망) 2022년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은 세계 수요 회복과 해외 생산능력 확충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대될 전망

<표 II-4> 주요 산업의 2022년 해외생산 전망

| | 해외생산기지(생산 전망) |
|-------|---|
| 자동차 | 중국(○) 미국(☆) 멕시코(☆☆) 동유럽(☆☆) 터키(☆☆) 인도(☆☆) |
| 조선 | 중국(↑) 베트남(↑↑) |
| 일반기계 | 중국(↑↑) 인도(○) 미국(☆) |
| 철강 | 중국(○) 미국(○) 중남미 (○) |
| 석유화학 | 중국(○) 아세안(○) 미국(☆☆) |
| 섬유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
| 바이오엘스 | 독일(☆)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

| 해외생산기지(생산 전망) | |
|---------------|---------------------------------|
| 정보통신기기 | 베트남(☹)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
| 가전 | 중국(☹) 동남아(☹) 유럽(☹) 중남미(☹) 미국(☹) |
| 반도체 | 중국(☹) 미국(☹) |
| 디스플레이 | 중국(☹) |
| 이차전지 | 중국(☹) 미국(☹) 유럽(☹)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미국, 멕시코 등 북미지역과 유럽, 아시아 등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두 자릿수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코로나19 영향이 축소되고 반도체 수급 차질이 점차 해소되면서 베트남, 인도 등 해외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는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률이 상승하며 전년동기비 증가 전망
 - 이차전지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
 - 반면, 조선은 전 세계 건조량 감소, 일반기계는 중국 건설시장 위축, 가전은 국내 수요 둔화 등으로 중국 해외공장의 생산이 부진할 전망
- **(제품 단가 변화)** 2022년에도 원자재가 상승 및 제품 프리미엄화에 의한 제품단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 전망

<표 II -5> 주요 산업의 제품 단가 관련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자동차 |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가격 상승 | ☹ |
| | 원자재가격 상승 | ☹ |
| 조선 | 철강가격의 높은 수준 유지 | ☹ |
| | 우량 조선사의 충분한 수주물량 | ☹ |
| |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확대 | ☹ |
| 일반기계 | 기타 원자재가격의 변화 | ☹ |
| | 국제 물류비 인상 | ☹ |
| | 제품의 고급화 | ☹ |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철강 | 기타 원자재가격의 변화 | ☹ |
| | 수급의 변화 | ☹ |
| 정유 | 유가 변화(제품 단가 하락) | ☹ |
| |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제 마진 상승 | ☹ |
| 석유화학 | 유가의 변화 | ☹ |
| |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 ☹ |
| 섬유 | 제품 고급화 | ☹ |
| | 글로벌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력 | ☹ |
| | 기타 원자재가격의 상승(제품 단가 상승 요인) | ☹ |
| 정보통신기기 | 수급의 변화(모바일 반도체 부족 등) | ☹ |
| | 제품의 고급화 | ☹ |
| 가전 | 원자재 및 물류 비용 상승 | ☹ |
| | 제품의 고급화(스마트화, 고효율화, 맞춤형 등) | ☹ |
| | 위탁생산 증가 | ☹ |
| 반도체 | 기타 원자재가격의 변화 | ☹ |
| | 수급의 변화 | ☹ |
| | 제품의 고급화 | ☹ |
| 디스플레이 | 중국 대형 LCD 생산확대 | ☹ |
| | 패널 고부가가치화 지속 | ☹ |
| 이차전지 | 원료소재 가격 상승 | ☹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정보통신기기, 가전 등은 제품 고급화를 통한 제품가격 상승 예상
- 조선은 원자재(철강)가격 상승과 더불어 제품 고급화(친환경 선박)로 높은 수준의 생산단가 유지 전망
- 석유화학은 생산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확대와 유가 상승세로 단가 상승 지속 전망
-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원료소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용 상승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반면, 2021년 급등했던 철강 가격은 중국 내수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하락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단가 안정화가 예상되며, 디스플레이는 생산능력 확대로 패널단가 추가 하락세 전망

(2) 국내 여건의 변화

□ 국내 수요 여건은 개선되지만, 공급능력, 경쟁 여건은 다소 악화

○ (국내 수요 여건) 소비 촉진 정책에 의해 올해 교체수요가 실현되었던 자동차, 가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이 수요산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국내 수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년 내수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는 내수 여건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표 II-6> 주요 산업의 국내 수요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자동차 | 장기적 추세 및 사이클(국내 자동차시장 성숙 정도) | ↑ |
| | 국내 경기(물가 상승, 위드 코로나 시행) | ↑ |
| | 환경규제 강화 | ☼ |
| | 수요 촉진 정책(개소세 인하 종료) | ↑ |
| 조선 |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 | ☼ |
| | 낮은 선가 시기에 발주가 많지 않아 신규 발주 부담 | ↑ |
| 일반기계 | 수요 촉진 정책(친환경선박법, 친환경선박 전환 및 관공선 대체) | ☼ |
| | 기계류 투자 동향(설비 및 건설) | ☼ |
| | 기저효과 | ↑ |
| 철강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 |
| | 환경규제의 강화 | ☼ |
| | 국내 경기 | ☼ |
| 정유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 |
| | 국내 경기(수송용 제품 수요 회복) | ☼ |
| | 기저효과 | ☼ |
| 석유화학 | 제품가격(유가 인상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 | ↑ |
| | 국내 경제 성장률 | ☼ |
| | 국내 수요산업의 생산 전망 | ☼ |
| 섬유 | 기저효과 | ↑ |
| |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수요 발생 | ↑ |
| |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 | ☼ |
| 바이오헬스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 |
| | 국내 경기 | ☼ |
|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의 발생 여부 | ☼ |
| 정보통신기기 | 장기적 추세 및 사이클 | ↑ |
| | 국내 경기 | ☼ |
| | 수요산업(5G 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동향 | ☼ |
| 가전 | 수요 촉진 정책(단통법 개정 등) | ☼ |
| | 국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 ☼ |
| |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가전 수요 감소 | ↑↑ |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 기저효과 | ↑ |
| | 수요 촉진 정책 감소 | ↓ |
| | 제품가격 상승(공급망 위기, 환율 상승, 고급화 등의 요인) | ↑ |
| 반도체 | 국내 경기 | ☼ |
|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의 발생 여부 | ☼ |
| 디스플레이 | LCD용 소재 부품 수요 감소 | ↓ |
| | OLED용 소재 부품 수요 상승력 | ☼ |
| 이차전지 | 차량용 LCD 수요 상승 | ☼ |
|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 |
| | 전기차 보조금 감소 | ☼ |
| | 환경규제 강화 | ☼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자동차는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교체수요 기실현, 인플레이션 우려, 개소세 인하 종료 등 내수 여건 악화 전망
- 가전도 가계 소비지출은 양호하나, 코로나19 특수 및 수요 촉진 정책 종료, 제품 가격 상승 및 역기지 효과 등이 내수 확대를 제약할 전망
- 디스플레이는 내수 비중이 기존 LCD에서 OLED로 확대되면서 관련 소재 부품의 내수 성장이 기대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등은 수요산업 호조에 내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산업은 위드 코로나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5G 서비스 확산, 비대면 온라인 수요 지속 등으로 개선될 전망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는 조선(친환경선박), 이차전지(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내수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공급능력 여건) 부품,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일부 산업에서 공급 능력 위축 우려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지속에 따른 공급망 불안, 외자업체의 생산축소 등이 공급능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 조선은 건조량 증가로 양호한 생산활동이 예상되나, 근로시간 단축·신규 인력 유입 제한,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이 공급능력을 제약
- 일반기계도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크게 회복되었으나,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해상물류 차질에 따른 납기 지연 등 부정적 요인 존재
- 철강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은 미미하나,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원자재(합금철 등)의 경우 향후 공급난 가능성 우려
- 정유와 석유화학은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가 대부분 완료되어 공급능력 확대가 기대되지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는 전방산업 수요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 섬유산업은 인건비 상승, 인력난 지속으로 공급능력에 부정적 영향
- 정보통신기기, 가전은 해외 생산 확대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국내 공급 능력은 위축 예상
- 이차전지는 원료소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원자재 수출량 제한 등 공급차질은 국내 공급능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소재·장비 등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공급능력 확대 기대

〈표 II-7〉 주요 산업의 공급능력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자동차 | 글로벌 공급망 위기(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 | ⬆ |
| | 외자기업체 실적 부진에 따른 공급능력 축소 | ⬆ |
| | 해외생산 확대(인도네시아 공장 신설, 생산모델 조정) | ⬆ |
| 조선 | 스마트야드 기술개발로 생산의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협력사 운영 및 신규인력 유입 제한 | ⬆ |
| | 합병·매각 및 임금인상 관련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 | ⬆ |
| 일반기계 | 생산인력 부족(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상승,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등) | ⬆ |
| | 에너지·원자재 가격 인상 | ⬆ |
| | 운송차질(물류비 인상, 해상물류 지연 등) | ⬆ |
| | 위드 코로나 시대 도래 | ⚡ |

| | 주요 여건 | 영향 정도 |
|--------|---------------------------------|-------|
| 철강 | 설비투자 변화 | ⚡ |
| | 생산의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
| 정유 | 신규 설비투자 확대 | ⚡ |
| | 생산의 효율화(정제설비 고도화 및 생산시스템 개선) | ⚡ |
| | 정제가동률 증가 | ⚡⚡ |
| 석유화학 | (국내외) 생산시설 신증설 | ⚡⚡ |
| | 생산시설 가동률 | ⚡ |
| | 제품 스프레드(에틸렌-나프타 마진) | ⚡ |
| | 글로벌 공급망 위기 | ⬆ |
| 섬유 | 설비투자 | ⚡ |
| | 생산의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
| | 인건비 상승, 인력난 지속 | ⬆ |
| 바이오헬스 | 설비투자 증가 | ⚡ |
| | 생산의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
| | 글로벌 공급망 위기 | ⬆ |
| 정보통신기기 | 2022년 국내 설비투자 | ⚡ |
| | 글로벌 공급망 위기(반도체 부품 부족 문제) 지속 | ⬆ |
| | 해외생산 공장(베트남, 인도 등) 가동의 정상화 전망 | ⚡ |
| | 코로나19 영향 완화 | ⚡ |
| 가전 | 공급망 위기(원자재 및 물류비용 증가, 반도체 부족 등) | ⬆ |
| | 동남아 지역 해외공장의 가동 정상화 | ⬆ |
| 반도체 | 생산의 효율화 | ⚡ |
| 디스플레이 | LCD 생산 감소 | ⚡ |
| | 해외 TV용 패널 공장 확대 | ⚡ |
| | QD-OLED 양산 시작 | ⚡ |
| 이차전지 | 국내 설비투자 | ⚡ |
| | 해외 설비투자 | ⚡⚡ |
| | 생산의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
| | 글로벌 공급망 위기(원자재 공급차질) | ⚡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설비투자) 2022년 설비투자는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2021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 전망

- 자동차는 완성차와 1차 부품업체 중심으로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조선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연구개발 투자 증가가 전망되나, 조선사 수익성 저조로 투자 규모는 제한적
- 철강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안전 관련 설비와 인력의 추가 등 안전문제 관련 사회적 요구 대응을 위한 투자도 지속될 전망

- 정유와 석유화학은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지·보수 목적의 제한적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설비 효율화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는 지속 증가 전망
- 섬유는 첨단 섬유소재,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의약품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지속 전망
-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은 해외생산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2022년 국내 설비 확장은 거의 없으며, 특히 가전은 해외 지역 거점투자 확대로 국내 설비 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
- 반도체는 국내 기업의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나, 반도체 가격과 수요 불확실성으로 보수적 투자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설비 확대, 이차전지는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과 원통형 파우치형 생산증설을 위한 투자 확대 지속

<표 II-8> 13대 주력산업의 2022년 설비투자 전망 기상도

| | 2021 | 2022 |
|--------|------|------|
| 자동차 | ☼ | ☼ |
| 조선 | ☺ | ☺ |
| 일반기계 | ☶ | ☺ |
| 철강 | ☶ | ☼ |
| 정유 | ☶☶ | ☶ |
| 석유화학 | ☶☶ | ☶ |
| 섬유 | ☺ | ☺ |
| 바이오헬스 | ☺ | ☼ |
| 정보통신기기 | ☺ | ☺ |
| 가전 | ☶ | ☶ |
| 반도체 | ☺ | ☼ |
| 디스플레이 | ☶ | ☼ |
| 이차전지 | ☺ |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국내 경쟁 여건 변화) 국내시장에서 중국 제품 및 해외생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경쟁 여건은 악화되겠지만, 신제품 출시 및 국내 생산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되는 측면도 존재

- 자동차는 국내 신차출시 지연, 가격경쟁력 약화, 수입차와의 경쟁 심화로 경쟁 여건 악화
- 일반기계는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자재 및 물류비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노동 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차질 등의 문제로 전반적인 경쟁 여건 악화 전망
- 철강, 정유, 디스플레이는 제품 고급화 및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해 국내 경쟁력 강화에 주력
- 정보통신기기 국내 업체들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업체와 경쟁이 심화될 전망

<표 II-9> 주요 산업의 국내 경쟁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 | 주요 여건 | 영향 크기 |
|--------|---|-------|
| 자동차 | 국내 업체 신차효과 소멸 | ☶ |
| | 국내 제품 가격 상승 | ☶ |
| | 수입차업체 가격인하 및 제품 다양화 | ☶ |
| 일반기계 |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수입제품 대비) | ☶ |
| | 노동조건 변화에 따른 납기일 준수 어려움 확대 | ☶ |
| | 국산 신제품 및 모델 출시 | ☼ |
| 철강 | 국산 신제품 및 모델 출시(신기술 및 신기능 포함) | ☼ |
| |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변화(수입제품 대비) | ☶ |
| | 중국 등 여타국의 제품 진출 | ☶ |
| 정유 | 고도화 설비 중심의 투자 확대 | ☼ |
| |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 | ☼ |
| | 정유·석유화학 복합설비 확충 | ☼ |
| 석유화학 | 중저가 범용제품 시장 내 국산 시장점유율 | ☶ |
| |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기반 제품 가격경쟁력 | ☶ |
| | 미국산 화학제품 동아시아항 수출규모 | ☼ |
| 섬유 | 국산 섬유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력 상승 | ☶ |
| | 수입 신제품 및 모델 출시(5G폰, 휴대형PC 등) | ☶ |
| | 국산 신제품 및 모델 출시(5G폰, 폴더블폰, 휴대형PC, SSD 등) | ☼☼ |
| 정보통신기기 |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변화(수입제품 대비) | ☼ |
| | 중국 등 여타국의 제품 진출(HTC, 모토로라 등 국내시장 재진출) | ☶ |

| | 주요 여건 | 영향 크기 |
|-------|----------------------|-------|
| 가전 | 국내 제품경쟁력과 브랜드의 경쟁우위 | ☆ |
| 반도체 |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 유지 | ☆ |
| | 수요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 ↑ |
| 디스플레이 | 고부가가치 제품 출시(QD-OLED) | ☆ |
| 이차전지 | 국내생산 전기차 관련 수주 현황 | ☆ |
| | 국내 제품의 에너지밀도 증가 | ☆ |
| | 품질 수준 향상 | ↑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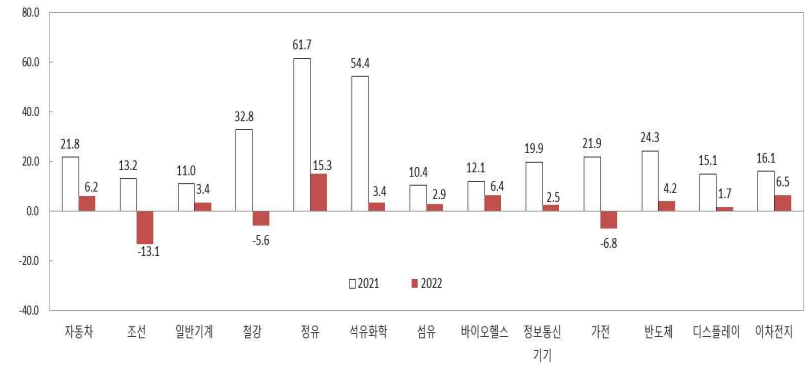
3. 2022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전망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전년(25.6%) 대비 크게 둔화

<그림 II-5> 2022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성장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수주 부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2% 소폭 증가 전망

- 자동차는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전동차와 고급 브랜드 차량 등 수출단가 상승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부품 공급망 불안정 지속 우려로 증가폭은 6.2% 둔화 전망

- 조선 수출물량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수주절벽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1% 감소 전망

- 일반기계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대응, 그린뉴딜 등 적극적 인프라 경기 부양 정책 지속과 수요산업 호조로 전년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되나, 중국 건설투자 규제 요인으로 3.4%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대부분 산업에서 수요 증대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 효과로 전년(41.2%) 대비 4.6% 증가하여 증가폭 크게 축소

- 철강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로 수출물량은 증가(4.1%)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단가 조정으로 수출액은 5.6% 감소 전망

- 정유는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와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체수요 확대 지속의 영향으로 15.3%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확대, 국내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능력 증가로 수출물량과 수출액 각각 2.4%, 3.4% 증가 전망

- 섬유는 글로벌 경기 성장세 지속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산업용 섬유 수요의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2.9%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백신 수주 증가, 주요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의료기기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6.4% 증가 전망

○ **(IT산업군)** 가전을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3.3% 증가가 예상되나, 전년(22.1%) 대비 증가폭은 크게 감소

- 정보통신기기는 2021년에 이어 SSD, 휴대폰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나 반도체 부품 수급 부족 영향,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 전망

- 가전은 주요 수출국의 경기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특수 종료와 국내업체의 해외 생산공장 정상화에 따른 국내 생산물량 감소로 6.8% 감소 전망

- 반도체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생산능력 확대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 전망

- 디스플레이는 LCD 감소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었지만, OLED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 전망

- 이차전지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수요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세 유지

〈표 II-10〉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주요 요인

| | 증가(긍정) 요인 | 감소(부정) 요인 | 종합평가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성 높은 전기차 신차 투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신흥시장 자동차 수요 증가 친환경차, 고급브랜드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 지속 가능성 외자계 완성차업체 수출차종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 예상 다만 반도체 수급문제과 같은 부품공급망 불안정 지속 우려로 증가폭 제한 |
| 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시황 회복에 따른 조기인도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주절벽 영향으로 수출물량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에 따른 수주 부족으로 수출 감소 |
| 일반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국의 환경규제 대응, 그린뉴딜 등 적극적 인프라 투자 정책 플랜트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속에 따른 기계부품류 수요 증가 국내 수요산업의 해외설비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건설투자 규제로 건설기계류 수요 감소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하게 진행될 경우 수요산업 생산 및 가동 차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수출 증가세는 유지하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중국의 정책 변수 등으로 제한적 |
| 철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제조업 본격 회복세 상반기까지 중국 감산기조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 가능성 ASEAN, 인도 등 자국 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 수출단가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요인 우세와 기저효과로 수출물량 증가 예상 다만 수출단가 조정으로 수출액 감소 |
| 정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 회복 가속화 LNG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석유제품 공급과잉 완화로 정제 마진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석유제품 수입소비세 부과 지속 동남아 델타변이 확산 지속 국제유가 하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단가 및 물량 동반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
|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 주요 수출대상국 경제성장률 회복 제품가격 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C 기반 제품 생산 증가 코로나 관련 제품 수요 감소 중국 경기 둔화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물량, 가격 모두 상승하며 증가세 지속(상고하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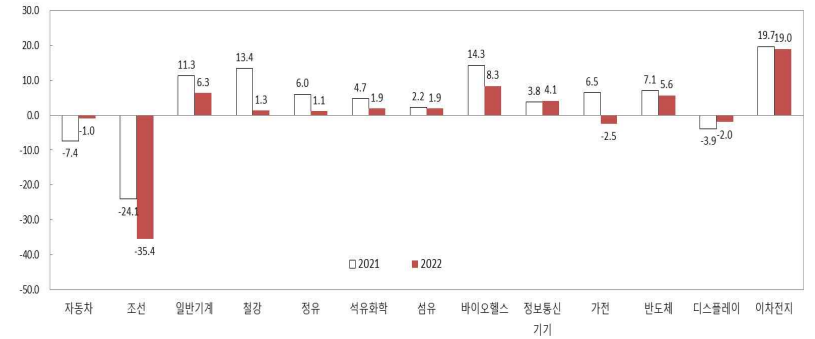
| | 증가(긍정) 요인 | 감소(부정) 요인 | 종합평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비 인상에 따른 시장 블록화 | | |
| 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 세계 산업생산 확대에 따른 산업용섬유 수요 확대 유가, 원자재가, 물류비용 상승 등 단가 인상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제품 수요 확대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 및 민간 소비 회복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출 회복 |
| 바이오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수주 증가 유럽, 미국 등 주요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추세 기저효과로 인한 의약품 수출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키트 수요의 점진적으로 감소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세로 소폭 증가 전망 |
| 정보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드 코로나와 수요 회복 주요국 5G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 신제품(폴더블폰, SSD) 출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재확산, 소비심리 저하 반도체 부족 문제 장기화 중국의 글로벌 전략 강화 해외생산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5G수요 증가, 신제품 출시로 수출이 증가 하나, 반도체 부족 문제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 |
| 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호조 소비 선행지수 양호 제품 고급화(가격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특수 종료 및 위드 코로나로 수요 감소 국내생산 감소 공급망 위기(원자재, 해운·물류, 반도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여건이 양호하나, 코로나19 특수 종료와 국내생산 감소로 수출은 전년비 감소로 전환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공급량 확대 반도체 응용제품에서 반도체 사용량 지속 확대 AI, 자율주행 자동차, IoT 등 신산업 발달 DDR5 보급 글로벌 IT 기업의 수요 회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지역 코로나 재유행 PC, 스마트폰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위축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수요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신산업 발달과 기존 산업에서의 반도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은 2022년에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디스플레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엔드 OLED 패널 수요 상승 OLED 애플리케이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패널 가격하락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LCD 감소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중심으로 수출 소폭 증대 |
| 이차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신규수요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생산의 안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ESS 수요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 |

□ 내수 : 대부분 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나 제한적 성장세

-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내수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그림 II-6> 2022년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설비 확대로 증가세가 예상되나, 자동차와 조선은 수요 부족과 발주 감소로 감소세 지속
- 2022년 자동차 내수는 차차 이용 수요 증가, 신규 수입차 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수요 기실현, 내수 진작책 종료, 반도체 공급부진 등의 제약 요인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 조선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국내 선사의 발주가 크게 감소하여 35.4% 큰 폭의 감소 전망
- 일반기계 내수는 정부의 SOC 투자 증가와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수요 산업 수출 증가로 6.3%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전망되나, 전년 내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미미

- 철강 내수는 건설 및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조선용 철강재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가전생산 감소로 1.3% 소폭 증가 전망
 - 정유는 가정용, 상업용, 수송용 제품 수요가 내수를 견인하겠지만,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요위축과 하반기 석유화학 수요 둔화로 1.1% 소폭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나, 전방산업 생산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 증가 전망
 - 섬유산업은 민간소비, 수요산업 생산 확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전년 대비 1.9% 증가 예상
 -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의약품 수요가 내수를 견인하여 전년 내수 급증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8.3% 증가 전망
- **(IT산업군)**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가 IT산업군 전체 내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반도체 부품 지연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5G시장 확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 수요 증가로 4.1% 증가 전망
 - 가전 내수는 양호한 국내 수요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교체수요 소진, 워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소비축진 정책 완화로 전년 대비 2.5% 감소 전망
 - 반도체 내수는 수요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의 감소요인이 있지만, SSD 생산 확대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망
 - 소재부품 중심인 디스플레이 내수는 2022년에도 국내 LCD 생산 위축 등으로 2.0% 감소 예상
 - 이차전지 내수는 국내 전기차 출시 확대로 전년(19.7%)에 이어 19.0% 큰 폭의 증가율 기록 전망

〈표 II -11〉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변화 주요 요인

| | 증가(긍정) 요인 | 감소(부정) 요인 | 종합평가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차이용 수요 증가 • 수입업체의 신차 투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상승 등 경기불안 • 교체수요 실현에 따른 수요 부족 • 완성차 공급 불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체수요 상당 부분 실현에 따른 수요 부족과 제품전환기에 따른 지연 수요 발생으로 내수시장 성장 제약 |
| 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인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및 시장 회복기 제한적 발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발주 감소로 내수 인도량 급감 |
| 일반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규모의 SOC 예산편성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 • 반도체, 자동차 등 수요산업 설비투자 •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기조효과에 따른 국내 경기의 제한적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및 제조업 수출 증가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 |
| 철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및 설비투자 성장 예상 • 조선용 후판 수요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생산 차질 상반기까지 지속 • 국내 가전생산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며, 수요 소폭 증가 예상 |
| 정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드 코로나에 따른 수송용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석유제품 수요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로 인한 수요 위축 • 전방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하반기 수요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용 중심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 소폭 증가 |
|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전방산업 업황 호조 • 국내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관련 제품 수요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 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영향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에 의류 소비 회복세 지속 • 수요산업의 생산 회복에 따른 산업용섬유 수요 확대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 민간 소비 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소비, 국내 산업 활동 회복으로 섬유 내수 확대 |
| 바이오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의약품 수요 지속 •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내수 급증에 대한 기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산업 수요 증가로 전반적인 수요는 소폭 증가 전망 |
| 정보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드 코로나와 소비심리 개선 • 5G 서비스 시장 확대 • 제품 출시와 교체수요 • 모토로라, HTC의 국내 재진출 • 비대면 온라인 수요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위축 • 비대면 수요 위축 • 반도체 부족문제 장기화와 신제품 출시 지연 • 휴대폰·PC 교체주기 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는 5G 서비스 시장 확대와 신제품 교체수요로 증가 예상 |
| 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 호조 • 소비 선행지수 증가세 • 제품 고급화(가격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특수로 가전 교체수요 대거 실현 • 워드 코로나 시행 • 수요 축진 정책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워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로 내수는 전년비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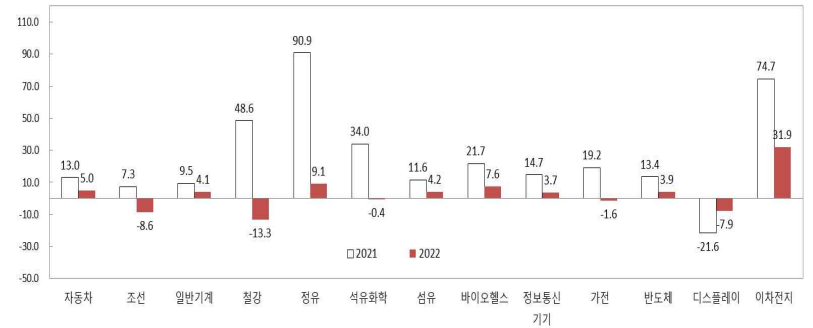
| | 증가(긍정) 요인 | 감소(부정) 요인 | 종합평가 |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신산업의 발달 SSD를 비롯한 첨단제품 수요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요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생산기지는 이미 대부분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신산업 발달에 따른 일부 수요 증가 전망 |
| 디스플레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패널 생산 확대에 의한 소재부품 수요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패널 생산 축소로 인한 소재 부품 수요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생산 확대의 강한 영향력으로 소폭 증가 |
| 이차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전기차 생산량 국내 ESS 보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전기차 제조사의 해외생산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전기차 생산량 증가 |

□ 수입 : 단가조정 및 기저효과로 2.8% 소폭 증가 전망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단가하락 및 전년 큰 폭의 수입 증가(22.1%)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 둔화 전망

<그림 II-7> 2022년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기계산업군) 조선은 해외 인도량 및 기자재 수입이 감소하지만,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입이 늘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3.6% 증가 전망

- 자동차 수입은 고급승용차 수요 증가와 수입차 AS부품 및 첨단 부품 수요 확대에 전년 대비 5.0% 증가
- 조선은 해외로부터의 인도물량 및 국내 조선사 건조량 감소로 전년 대비 8.6% 감소 전망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견조한 내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1%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수입단가 조정과 전년 큰 폭의 수입액 증가(39.7%)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 전망

- 철강 수입물량은 중국 수출재개 가능성으로 전년 대비 증가(2.0%)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철강가격 조정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3% 큰 폭의 하락세 전망
- 정유수입은 나프타 및 LPG 수요 증가 등으로 9.1% 증가세 유지
- 석유화학은 내수 호전으로 중간재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하반기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이 예상되어 수입액은 전년 대비 0.4% 감소 전망
- 섬유는 해외생산 증저가 의류 수입뿐만 아니라 장기간 억눌린 소비심리 회복이 고가품 의류 수입 확대대로 이어져 전년 대비 4.2%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는 원부자재 수출 조정 등 공급망 리스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백신과 의약품 원부자재 수입량 증가가 지속되어 7.6% 증가하며 전년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IT산업군)** 가전과 디스플레이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내수 확대가 IT산업군 수입 증가를 견인하여 전년 대비 4.0% 증가
 -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5G 휴대폰 및 휴대용 PC 출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7% 증가 전망
 - 가전은 해외생산 제품의 국내 역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해운 물류비용 부담으로 수입제품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1.6% 감소 전망
 - 디스플레이는 재고관리용 LCD 재수입 물량 축소로 7.9% 감소하여 전년 (-21.6%)에 이어 감소세 지속 전망
 - 이차전지는 가파른 내수 성장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물량 역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31.9% 증가

〈표 II -12〉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변화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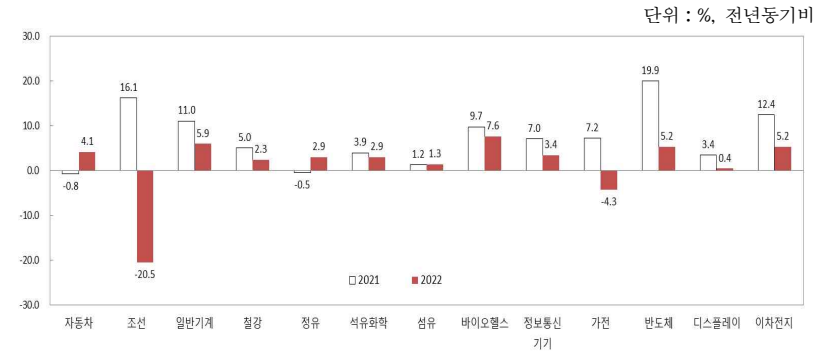
| | 증가(긍정) 요인 | 감소(부정) 요인 | 종합평가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급차 수요 증가 • AS 부품수요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완성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 대기수요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차 수요층 확대와 국내 생산차와 가격격차 감소에 따른 증가 |
| 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건조량 증가에 따른 기자재 수입 증가 및 국내 선사 발주 감소에 따른 중고선 수입 증가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인도받을 국내 해운사의 선박 감소 • 2022년 국내 조선사 건조량 감소에 따른 기자재 수입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조선사의 건조량 감소와 해외 조선사로부터 인도받을 신조 물량이 거의 없어 수입 감소 |
| 일반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전반의 생산 증가에 따른 부품류 수입 증가 • 공정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른 고사양 장비류 수요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에너지효율 목표에 따른 전력공급 제한으로 공장가동 제증단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의 강한 회복세에 따라 수입 증가 지속 전망 |
| 철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출재개 가능성 • 동남아 저가재 유입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 수입단가 인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수입 물량 증가 가능성 존재하나 2021년 큰 폭 증가로 인해 증가 규모 제한적 |
| 정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 석유화학제품용 나프타 수요 확대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석유화학산업의 수요 확대폭 둔화 •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확대에 따른 자급률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단가 상승과 석유화학산업 수요 확대 지속 |
|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3%) • 일본산 중간재 수입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단가 하락(하반기) • 내수 증가 폭 제한 • 중국산 수입량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감요인이 혼재하며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 수입액 감소 |
| 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의류, 의류용 섬유소재 및 부자재 수입수요 확대 • 수호산업의 생산 회복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입수요 확대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 해외생산제품 역수입 및 증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 임금 상승률 둔화 등 민간소비 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 및 국내 생산활동 회복에 따른 섬유 수입수요 확대 |
| 바이오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의약품의 수입 증가 •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및 공급난 흐름에 따른 원부자재 공급망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산업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 전망 |
| 정보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드 코로나, 소비심리 회복 • 경쟁사 신제품 수요 증가 • 국내제품의 역수입 증가 • 5G 전국망 및 고도화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저하 • 부품 조달 등 공급망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회복과 신제품 수입수요 확대 로 증가 전망 |
| 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해외공장으로부터 역수입 • 글로벌 플랫폼사의 국내 스마트홈 시장 진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감소 • 제품 가격 상승(운 및 물류비용, 환율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감소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수입은 전년비 감소로 전환 |

| | 증가(긍정) 요인 | 감소(부정) 요인 | 종합평가 |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하여 아날로그 반도체 국내 생산 저조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반도체 최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거시 반도체를 신제품이 대체 제품 특성상 수입제품 대체가 어려우므로 감소요인은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거시 반도체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하는 시스템반도체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어 반도체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 전망 |
| 디스플레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재수입 물량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 관리용 재수입 LCD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중심으로 감소 지속 |
| 이차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전기차 제조사의 해외생산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증가 |

□ 생산 : 수출 및 내수 성장세 지속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 전망

○ 코로나19로 건조물량이 감소한 조선산업과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및 내수 확대로 생산 증가세 전망

<그림 II-8> 2022년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가 예상되나, 조선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큰 폭의 감소 전망

- 자동차산업은 2022년에도 내수 감소와 반도체 공급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와 신차 출시로 전년 대비 4.1% 증가 전망

- 조선은 고부가·고기술 선박인 LNG운반선과 화학제품 운반선의 인도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수주 부족에 따른 건조 척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5% 큰 폭의 감소 전망

- 일반기계 생산은 반도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활성화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5.9%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증가 전망

- 철강은 내수와 수출 동반 확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
- 정유는 항공유를 비롯한 수송용 석유제품 중심으로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이 상향조정 되어 2.9%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내수 및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국내 신증설 생산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전년 대비 2.9% 증가 전망
- 섬유는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생산제품의 수입 확대, 주 52시간 근로의 중소기업 적용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세계 수요의 확대에 따라 1.3% 증가 전망
-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국내 위탁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진단키트 수요는 감소하여 바이오헬스 생산은 전년 대비 7.6% 증가

○ (IT산업군) 가전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감소하지만,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기업용 SSD 수요와 5G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대로 3.4% 증가 전망
- 가전 생산은 수출과 내수 모두 감소하고 해외 생산 정상화에 따른 국내 생산물량 축소로 전년 대비 4.3% 감소
- 반도체 생산은 지속적인 국내외 수요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 QD-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LCD 생산의 감산 지속으로 0.4% 미증에 그칠 전망
- 이차전지 생산은 국내 생산설비 확충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

<표 II -13>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변화 주요 요인

| | 증가(긍정) 요인 | 감소(부정) 요인 | 종합평가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증가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판매 감소 부품공급망 불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증가 등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 예상되나 부품공급망 불안정성이 제약으로 작용 |
| 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시황 회복에 따른 조기 인도 요청 가능성과 2023년 건조량 증가에 따른 생산활동 회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주절벽 영향으로 건조물량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에 따른 수주 부족으로 건조량 감소하지만, 2023년 건조량 증가로 생산활동은 활발해질 전망 |
| 일반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 주요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증가세 지속 2020년 EPC 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계부품류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연, 물류예로 등 생산제약요인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 및 주요국의 인프라 경기 부양기조 지속에 따라 증가 |
| 철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수출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소수 부족 등 공급난 지속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 요인 우위로 생산 소폭 증가 예상 |
| 정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용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수요 및 수출 증가 정제 마진 회복 추세 지속에 따른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관련 석유화학제품 수요 감소 고유가 추세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제 마진 회복세 지속에 따른 국내 정제설비 상향조정 및 생산 확대 |
|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 제품 가격 인상 국내 경제성장을 상향 조정 (3%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관련 제품 수요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시설 신증설, 사고 생산시설 복구로 생산능력 증가 |
| 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 및 산업용 섬유 내수 및 수출 확대 친환경섬유, 야외활동용 의류 및 용품 생산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투자 확대의 생산유발효과 약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역수입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및 수출 회복으로 생산 증가 |
| 바이오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확충 바이오의약품(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 수주 증가 기저효과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키트 생산의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 증가 |
| 정보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과 내수 증가 신제품 출시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생산 및 현지부품 조달 확대 반도체 부족 장기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내수 확대로 증가하나 해외생산 확대와 반도체 부족으로 증가세 둔화 |

| | 증가(긍정) 요인 | 감소(부정) 요인 | 종합평가 |
|-------|--|---|---|
| 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중견기업의 성장 생산역량을 갖춘 위탁 중소기업의 성장 생산 품목의 고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감소 내수 감소 해외생산 증가(동남아 해외공장 정상화) 역수입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내수 감소와 해외생산 증가세 회복으로 생산은 전년비 감소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화 전환 및 수출 향상으로 생산능력 확대 삼성전자 평택 2라인 본격 가동 SK하이닉스의 본격적인 파운드리 사업 진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 디스플레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OLED 수요 확대 QD-OLED 양산 돌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공급망 불안 LCD 감소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폭 증가 전망 |
| 이차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능력 증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능력 증가 |

〈그림 II-9〉 2022년 산업 전망 기상도

| | | 수출 | 내수 | 수입 | 생산 |
|--------|--------|----|----|----|----|
| 기계 산업군 | 자동차 | ☼ | ☹ | ☼ | ☹ |
| | 조선 | ☹☹ |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
| 소재 산업군 | 철강 | ☹ | ☹ | ☹☹ | ☹ |
| | 정유 | ☼☼ | ☹ | ☼ | ☹ |
| | 석유화학 | ☹ | ☹ | ☹ | ☹ |
| | 섬유 | ☹ | ☹ | ☹ | ☹ |
| | 바이오헬스 | ☼ | ☼ | ☼ | ☼ |
| IT 산업군 | 정보통신기기 | ☹ | ☹ | ☹ | ☹ |
| | 가전 | ☹ | ☹ | ☹ | ☹ |
| | 반도체 | ☹ | ☼ | ☹ | ☼ |
| | 디스플레이 | ☹ | ☹ | ☹ | ☹ |
| | 이차전지 | ☼ | ☼☼ | ☼☼ | ☼ |

- 주 1) 전망 :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4. 정책적 시사점

□ 정책환경 진단

○ 국내외 저탄소·친환경 기조가 확산되며 환경 관련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및 대응 필요

○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제품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운 제품 수요가 창출되고 신산업이 출현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공급망 관리, 제품 고급화 및 차별화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

○ 미·중 무역분쟁 및 첨단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 대책

○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친환경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과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필요

〈표 II-14〉 환경규제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 업종 | 정책 방안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전기 상용차용 대용량 충전소 구축 및 연료 보조금 신설 부품국산화율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적용 고려 전기차 시장 초기 보급확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A/S 정비공장 구축 의무화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장기 저리 특별 금융, 신용보증 확대 |

| 업종 | 정책 방안 |
|------|--|
| 조선 | • 친환경(LNG·LPG·메탄올)선박,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국제 표준 주도 |
| 일반기계 | • 일반기계산업 맞춤형 ESG 강화전략 마련 • 오픈플랫폼을 통한 산업공정 에너지전환 및 고효율화 계획 정보 공유 |
| 철강 | •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 확대 • 에너지효율기술 지속 발굴 •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마련 |
| 정유 | •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술인 CCS(Carbon Capture & Storage) 및 e퓨얼 등 친환경 연료 생산을 위한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개발 지원 |
| 석유화학 | •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부문 사용 권고 및 규제 샌드박스 지정 |
| 섬유 | • 대체소재 개발 및 국내 소재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 지원 |
| 이차전지 | • 핵심 다배출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현황 및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 등 전방위적인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

< 자동차 >

-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하여 전기차, 수소차 관련 인프라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상용차용 대용량 충전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 신설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를 허용하고 상업용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신설을 통한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의 선제적 투자 필요
 - 한국산 부품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부품국산화율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적용 고려
 - 전기차 시장 초기 보급확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A/S 정비공장 구축 의무화 등의 조치 필요
- 전동화, 자율주행화 등 미래차 부품 개발기간은 물론 수요 활성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금융지원 방안 모색 필요
 - 미래차 부품 개발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고 수익성 확보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해 금융지원도 장기 저리 특별 금융프로그램과 신용보증 확대 등 방안 모색

< 조선 >

- LNG·LPG·메탄올 연료추진선박 기술 및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개발 및 장기적으로 무탄소연료추진선박·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
- 기술개발에서 실증까지 국내외 해운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통해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여 글로벌 규제 주도

< 일반기계 >

-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ESG가 강화되면서 ESG 성과에 따라 공급망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특히 E(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민-관-학 협동을 통해 기계산업 품목 특성에 따른 일반기계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설비투자 지원
- ESG 대응 관련 해외 기업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 기업들의 대응을 촉진
- 아울러 제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공정 에너지전환 및 고효율화 계획 등을 오픈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일반기계산업 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 철강 >

-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필요
-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 확대, 적극적 에너지효율 지속 발굴로 단기 목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 개발과 성공적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과 과감한 투자 진행

< 정유 >

- 탄소중립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대비한 원가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연료를 포함하는 종합 에너지 공급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
-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술인 CCS(Carbon Capture & Storage) 및 e퓨얼 등 친환경 연료 생산을 위한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 개발 등 민관 협력 투자 및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

< 석유화학 >

- 재활용 플라스틱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재활용 플라스틱은 기계적,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전망
 - 비용 문제로 현재는 정제, 분쇄 등을 통한 기계적 재활용 방식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제품 물성이 낮은 한계점 보유
 - 향후 적용 대상 범위가 넓고 반영구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
- 재활용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정책 필요
 - 현재 환경부의 규제에 의해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문제
 - 재활용 플라스틱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조달 부문 사용 권고, 재활용 플라스틱 우선 사용을 위해 특정 지역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스포츠경기장 내 음식료 포장재 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섬유 >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섬유제품 생산 기반 및 관련 생태계 구축 지원
 - 글로벌 브랜드들은 친환경 재생섬유 소재 채용 의류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리사이클 섬유 생산 기반은 매우 취약
 - 우리나라는 의류용 리사이클 칩을 전량 수입에 의존, 생산 및 가격경쟁력 열위에 있어 친환경 섬유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 이차전지 >

- 이차전지산업의 환경성 개선을 위해,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제품 개발 지원, 대체 소재 개발 등을 지원
 - 친환경 원료소재 조달과 관련한 새로운 공급선 모색
- 핵심 다배출 기업인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현황 및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 등 전방위적인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이 긴급

□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유망 기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표 II-15>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 업종 | 경쟁력 제고 방안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공급망 내재화 연계나 전략 품목 공급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필요 •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내재화 지원 |

| 업종 | 경쟁력 제고 방안 |
|--------|--|
| 철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수요 대응을 통한 산업구조·제품 구조 고도화 필요 |
| 정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제설비 고도화 석유화학복합시설 투자 확대 정유·석유화학 통합설비 개발 및 도입 추진 |
| 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산업 생산공정 및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헬스케어 관련 고기능성 섬유 개발 지원 |
| 바이오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헬스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연계 강화 '기초·원천 단계 혁신적 R&D'에 대한 투자 확대 |
| 정보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확보 및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인프라(5G망, 데이터 활용 기반 등) 구축 지원 |
| 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홈'으로 대표되는 품목구조 변화와 서비스 융합의 확산을 촉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 |
| 디스플레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 자동차 >

- 전동차, 자율주행차로 진화되면서 자동차 공급사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사슬 점검을 통한 재설계 필요
 -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서로 상이한 두 개의 생산시스템이 연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시스템 및 부품공급망 이해 필요
 -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공급망 내재화 연계나 전략 품목 공급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필요
 -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내재화 지원

< 철강 >

- 유망 수요 대응을 통한 산업구조·제품 구조 고도화 필요
 - 고강도·고기능성 제품 비중 확대, 기존 설비 합리화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와 불확실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필요

< 정유 >

- 정제설비 고도화 및 석유화학복합시설 투자 확대와 더불어 정유·석유화학 통합설비인 COTC(Crude Oil to Chemical) 개발 및 도입 추진

< 섬유 >

- 섬유산업의 생산공정 및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섬유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 융합 밸류체인 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패션의류산업과 빅데이터, AI, AR 및 VR의 융합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생산 혁신,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 융합 섬유제품 개발 지원
 - 디지털 전환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도입 지원
- 코로나 이후 항바이러스, 건강 등의 관심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헬스케어 관련 고기능성 섬유 개발 지원
 - 마스크·방진복 등 방호 관련 제품, 섬유제 위생용품, 청정가전용 필터 등 산업용 소재, 바이오 메디컬 섬유 등

< 바이오헬스 >

-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 동력화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바이오 헬스산업 패권 경쟁에서 위상 정립
 - 범부처 바이오헬스산업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초연구에서 제품화까지 바이오헬스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연계 강화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원천 단계 혁신적 R&D’에 대한 투자 확대

〈 정보통신기기 〉

- 5G 융합단말, 플렉시블폰, 차세대 통신장비, SSD 등 미래 유망 제품 선도를 위한 혁신 및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
- AI, 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의 디지털 기술,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의 전략 마련 및 투자를 적극 확대
-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및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의 혁신 및 성장 여건을 마련

〈 가전 〉

- ‘스마트홈’으로 대표되는 품목구조 변화와 서비스 융합의 확산을 촉진하여, 제품 수요 둔화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수익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
- 스마트홈은 사용자 편의 개선, 에너지효율 개선, 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 타제품·서비스·콘텐츠와 연계 등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2022년에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한 R&D 확대, 기존 제조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역량 강화,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플랫폼 역량 강화, 제도·규제 정비 등 다방면의 정책지원 모색이 필요

〈 디스플레이 〉

-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OLED의 애플리케이션 확대 적용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도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필요

- 메타버스, AR/VR 등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업화 지원 방향이 필요

-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정 필요

- 혁신·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핵심산업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며, 디스플레이 지정으로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

- 미·중 무역·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제품에 대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원료·소재의 대중 의존도 경감, 수출입선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강화, 공급망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지원 정책 등이 필요

〈표 II-1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

| 업종 | 대응 방안 |
|--------|--|
| 정보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기술분쟁, 미국의 공급망 조사, 주요국의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 경향에 예의주시하고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 • 기업들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 및 마케팅 강화, 수출입선 다변화 및 시장개척을 지원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 |
| 이차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지산업의 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원자재 부문에 있어서 특정국 의존도 개선이 필요 |

< 정보통신기기 >

- 코로나 확산과 미·중 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과 이로 인한 국제분업체계 변화, 조달처 다변화·안정화 흐름에 긴밀한 대응 필요
 - 미·중 기술 분쟁, 미국의 공급망 조사, 주요국의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 경향에 예의주시하고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
- 기업들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 및 마케팅 강화, 수출입선 다변화 및 시장 개척을 지원
 - AI·데이터, 5G 기반의 신제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확대
 - 차세대 IT부품 및 5G 통신장비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기술·투자 정보, 해외인증, 온라인 마케팅 등)을 강화하고 대·중소 기업 협력 활성화를 도모

< 반도체 >

- 지난 2월 미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3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행정명령 이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
 -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여 반도체 생산 비중을 낮추었던 유럽, 일본 등에서도 반도체 제조업 부활 움직임
 -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에서 반도체 제조기업 유치를 위하여 앞다투어 지원 정책을 발표
 -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 증대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
 -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대표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주요국들이 발표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자세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
 - 지난 5월, 우리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발표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그사이에 일본 정부는 해외기업 유치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지원 정책을 준비 중
 -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경쟁국에서 발표하는 지원보다 매력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 이차전지 >

-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유럽도 이차전지 자급화를 위해 환경규제 강화 등을 통해 노력
 - 기술패권과 관련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전지 산업의 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원자재 부문에 있어서 특정국 의존도 개선이 필요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 | 2020 | 2021 | | | 2022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 상반기 | 하반기 | |
| 자동차 | 56,039 (-14.5) | 35,203 (47.7) | 33,075 (2.7) | 68,278 (21.8) | 35,072 (-0.4) | 37,455 (13.2) | 72,527 (6.2) |
| 조선 | 19,749 (-2.0) | 11,869 (21.5) | 10,484 (5.0) | 22,353 (13.2) | 10,080 (-15.1) | 9,336 (-11.0) | 19,416 (-13.1) |
| 일반기계 | 47,886 (-8.9) | 25,956 (9.0) | 27,195 (13.0) | 53,151 (11.0) | 27,015 (4.1) | 27,920 (2.7) | 54,935 (3.4) |
| 철강 | 26,557 (-14.5) | 16,379 (27.0) | 18,901 (38.3) | 35,280 (32.8) | 16,994 (3.8) | 16,317 (-13.7) | 33,311 (-5.6) |
| 정유 | 24,167 (-40.6) | 16,048 (26.9) | 23,020 (99.8) | 39,068 (61.7) | 24,080 (50.1) | 20,949 (-9.0) | 45,030 (15.3) |
| 석유화학 | 35,589 (-16.4) | 25,941 (50.3) | 29,025 (58.3) | 54,966 (54.4) | 29,884 (15.2) | 25,830 (-11.0) | 56,843 (3.4) |
| 섬유 | 11,238 -13.3 | 6,125 14.6 | 6,280 6.6 | 12,405 10.4 | 6,350 3.7 | 6,417 2.2 | 12,767 2.9 |
| 바이오헬스 | 13,860 (55.3) | 7,737 (29.4) | 7,804 (-1.0) | 15,541 (12.1) | 8,124 (5.0) | 8,416 (7.8) | 16,539 (6.4) |
| 정보통신기기 | 27,115 (17.2) | 14,807 (16.8) | 17,716 (22.7) | 32,523 (19.9) | 15,135 (2.2) | 18,190 (2.7) | 33,325 (2.5) |
| 가전 | 6,989 (0.7) | 4,090 (38.1) | 4,430 (10.0) | 8,520 (21.9) | 3,882 (-5.1) | 4,062 (-8.3) | 7,944 (-6.8) |
| 반도체 | 99,179 (5.6) | 57,141 (21.9) | 66,184 (26.5) | 123,325 (24.3) | 59,266 (3.7) | 69,293 (4.7) | 128,559 (4.2) |
| 디스플레이 | 17,983 (-12.3) | 9,202 (25.5) | 11,504 (8.0) | 20,706 (15.1) | 9,036 (-1.8) | 12,022 (4.5) | 21,058 (1.7) |
| 이차전지 | 7,510 (1.3) | 4,312 (24.1) | 4,409 (9.3) | 8,721 (16.1) | 4,580 (6.2) | 4,705 (6.7) | 9,285 (6.5) |
| 13대 합계 | 393,861 (-7.6) <76.9> | 234,810 (27.0) <77.5> | 260,027 (24.4) <79.6> | 494,837 (25.6) <78.6> | 249,498 (6.3) <80.3> | 260,912 (0.3) <79.7> | 511,539 (3.4) <80.2> |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

| | 2020 | 2021 | | | 2022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 상반기 | 하반기 | |
| 자동차 (천 대) | 1,879 (5.3) | 902 (-3.0) | 837 (-11.8) | 1,739 (-7.4) | 864 (-4.2) | 858 (2.5) | 1,722 (-1.0) |
| 조선 (만 CGT) | 294 (96.0) | 138 (-2.8) | 85 (-44.1) | 223 (-24.1) | 75 (-45.7) | 69 (-18.8) | 144 (-35.4) |
| 일반기계 (10억 원) | 102,810 (7.0) | 60,824 (17.1) | 53,604 (5.4) | 114,427 (11.3) | 65,250 (7.3) | 56,406 (5.2) | 121,656 (6.3) |
| 철강 (천 톤) | 48,956 (-8.0) | 27,640 (10.6) | 27,870 (16.3) | 55,510 (13.4) | 27,929 (1.0) | 28,294 (1.5) | 56,222 (1.3) |
| 정유 (십만 배럴) | 8,772 (-5.9) | 4,550 (2.6) | 4,746 (9.4) | 9,296 (6.0) | 4,614 (1.4) | 4,786 (0.8) | 9,401 (1.1) |
| 석유화학 (백만 톤) | 10,635 (-3.2) | 5,834 (11.6) | 5,365 (-0.8) | 11,137 (4.7) | 5,701 (-2.3) | 5,644 (5.2) | 11,345 (1.9) |
| 섬유 (10억 원) | 66,277 (-5.1) | 32,789 (1.4) | 34,956 (3.0) | 67,745 (2.2) | 33,541 (2.3) | 35,511 (1.6) | 69,052 (1.9) |
| 바이오헬스 (10억 원) | 38,217 (13.0) | 20,210 (6.0) | 23,463 (22.5) | 43,673 (14.3) | 23,253 (15.1) | 24,039 (2.5) | 47,292 (8.3) |
| 정보통신기기 (10억 원) | 49,798 (3.1) | 27,009 (6.4) | 24,671 (1.0) | 51,680 (3.8) | 27,786 (2.9) | 26,035 (5.5) | 53,821 (4.1) |
| 가전 (10억 원) | 28,146 (9.6) | 14,971 (11.5) | 15,015 (2.0) | 29,986 (6.5) | 14,669 (-2.0) | 14,576 (-2.9) | 29,245 (-2.5) |
| 반도체 (10억 원) | 60,757 (5.4) | 30,792 (17.2) | 34,278 (-0.6) | 65,070 (7.1) | 32,668 (6.1) | 36,047 (5.2) | 68,716 (5.6) |
| 디스플레이 (10억 원) | 38,876 (-2.4) | 18,104 (-5.0) | 19,272 (-2.8) | 37,375 (-3.9) | 17,419 (-3.8) | 19,204 (-0.3) | 36,623 (-2.0) |
| 이차전지 (10억 원) | 5,216 (35.5) | 2,783 (-5.7) | 3,459 (52.7) | 6,224 (19.7) | 3,376 (21.3) | 4,031 (16.5) | 7,408 (19.0) |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 | 2020 | 2021 | | | 2022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 상반기 | 하반기 | |
| 자동차 | 18,596 (7.3) | 10,794 (30.3) | 10,219 (-0.9) | 21,014 (13.0) | 11,028 (2.2) | 11,033 (8.0) | 22,061 (5.0) |
| 조선 | 3,437 (44.4) | 1,685 (-4.6) | 2,003 (19.9) | 3,688 (7.3) | 1,525 (-9.5) | 1,847 (-7.8) | 3,372 (-8.6) |
| 일반기계 | 28,683 (-0.3) | 15,641 (13.4) | 15,754 (5.8) | 31,395 (9.5) | 16,397 (4.8) | 16,288 (3.4) | 32,685 (4.1) |
| 철강 | 16,295 (-24.7) | 10,627 (21.3) | 13,590 (80.4) | 24,217 (48.6) | 10,652 (0.2) | 10,343 (-23.9) | 20,995 (-13.3) |
| 정유 | 12,953 (-26.1) | 9,737 (30.2) | 14,989 (173.9) | 24,726 (90.9) | 14,913 (53.2) | 12,055 (-19.6) | 26,967 (9.1) |
| 석유화학 | 10,768 (-15.1) | 7,396 (42.5) | 7,030 (26.0) | 14,426 (34.0) | 7,503 (1.4) | 6,869 (-2.3) | 14,372 (-0.4) |
| 섬유 | 16,203 (-5.3) | 8,238 (12.6) | 9,850 (10.9) | 18,088 (11.6) | 8,652 (5.0) | 10,160 (3.1) | 18,845 (4.2) |
| 바이오헬스 | 16,156 (6.8) | 8,865 (12.8) | 10,804 (30.3) | 19,669 (21.7) | 10,384 (17.1) | 10,772 (-0.3) | 21,155 (7.6) |
| 정보통신기기 | 27,455 (3.3) | 15,657 (20.3) | 15,831 (9.7) | 31,488 (14.7) | 16,182 (3.4) | 16,458 (4.0) | 32,640 (3.7) |
| 가전 | 7,558 (6.6) | 4,569 (30.6) | 4,441 (9.4) | 9,010 (19.2) | 4,510 (-1.3) | 4,357 (-1.9) | 8,867 (-1.6) |
| 반도체 | 50,291 (6.9) | 27,413 (18.9) | 29,614 (8.7) | 57,027 (13.4) | 27,524 (0.4) | 31,700 (7.0) | 59,224 (3.9) |
| 디스플레이 | 3,308 (-29.6) | 1,311 (-30.4) | 1,284 (-9.9) | 2,595 (-21.6) | 1,203 (-8.2) | 1,188 (-7.5) | 2,391 (-7.9) |
| 이차전지 | 2,004 (26.8) | 1,373 (56.7) | 2,128 (88.6) | 3,501 (74.7) | 2,079 (51.4) | 2,540 (19.4) | 4,619 (31.9) |
| 13대 합계 | 213,707 (-2.7) <45.7> | 123,306 (20.0) <43.2> | 137,537 (24.0) <43.8> | 260,844 (22.1) <43.5> | 132,552 (7.5) <45.0> | 135,610 (-1.4) <43.6> | 268,193 (2.8) <44.3> |

-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

| | 2020 | 2021 | | | 2022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 상반기 | 하반기 | |
| 자동차 (천 대) | 3,507 (-11.2) | 1,815 (11.5) | 1,666 (-11.4) | 3,480 (-0.8) | 1,764 (-2.8) | 1,858 (11.5) | 3,622 (4.1) |
| 조선 (만 CGT) | 882 (-7.6) | 633 (41.0) | 391 (-9.7) | 1,024 (16.1) | 441 (-30.3) | 373 (-4.6) | 814 (-20.5) |
| 일반기계 (10억 원) | 125,472 (3.7) | 72,632 (13.9) | 66,701 (8.1) | 139,334 (11.0) | 77,620 (6.9) | 69,943 (4.9) | 147,563 (5.9) |
| 철강 (천 톤) | 70,155 (-4.6) | 36,738 (5.8) | 36,928 (4.2) | 73,666 (5.0) | 37,397 (1.8) | 37,930 (2.7) | 75,327 (2.3) |
| 정유 (십만 배럴) | 11,590 (-7.3) | 5,612 (-4.9) | 5,916 (4.0) | 11,528 (-0.5) | 5,830 (3.9) | 6,032 (1.9) | 11,861 (2.9) |
| 석유화학 (백만 톤) | 21,365 (-0.8) | 10,864 (1.6) | 11,338 (6.3) | 22,202 (3.9) | 11,418 (5.1) | 11,429 (0.8) | 22,847 (2.9) |
| 섬유 (10억 원) | 60,446 (-7.1) | 30,428 (1.6) | 30,772 (0.9) | 61,200 (1.2) | 30,865 (1.4) | 31,150 (1.2) | 62,015 (1.3) |
| 바이오헬스 (10억 원) | 35,508 (33.5) | 18,919 (12.3) | 20,029 (7.3) | 38,947 (9.7) | 20,623 (9.0) | 21,297 (6.3) | 41,920 (7.6) |
| 정보통신기기 (10억 원) | 49,396 (11.5) | 26,059 (4.4) | 26,773 (9.6) | 52,832 (7.0) | 26,569 (2.0) | 28,049 (4.8) | 54,618 (3.4) |
| 가전 (10억 원) | 27,460 (7.6) | 14,436 (13.0) | 15,001 (2.2) | 29,437 (7.2) | 13,939 (-3.4) | 14,232 (-5.1) | 28,171 (-4.3) |
| 반도체 (10억 원) | 118,440 (5.4) | 64,825 (19.3) | 77,142 (20.4) | 141,967 (19.9) | 69,568 (7.3) | 79,843 (3.5) | 149,411 (5.2) |
| 디스플레이 (10억 원) | 56,194 (-3.5) | 26,929 (5.1) | 31,171 (2.0) | 58,100 (3.4) | 26,525 (-1.5) | 31,826 (2.1) | 58,351 (0.4) |
| 이차전지 (10억 원) | 10,856 (12.1) | 6,067 (15.9) | 6,134 (9.2) | 12,201 (12.4) | 6,284 (3.6) | 6,553 (6.8) | 12,837 (5.2) |

-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계,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